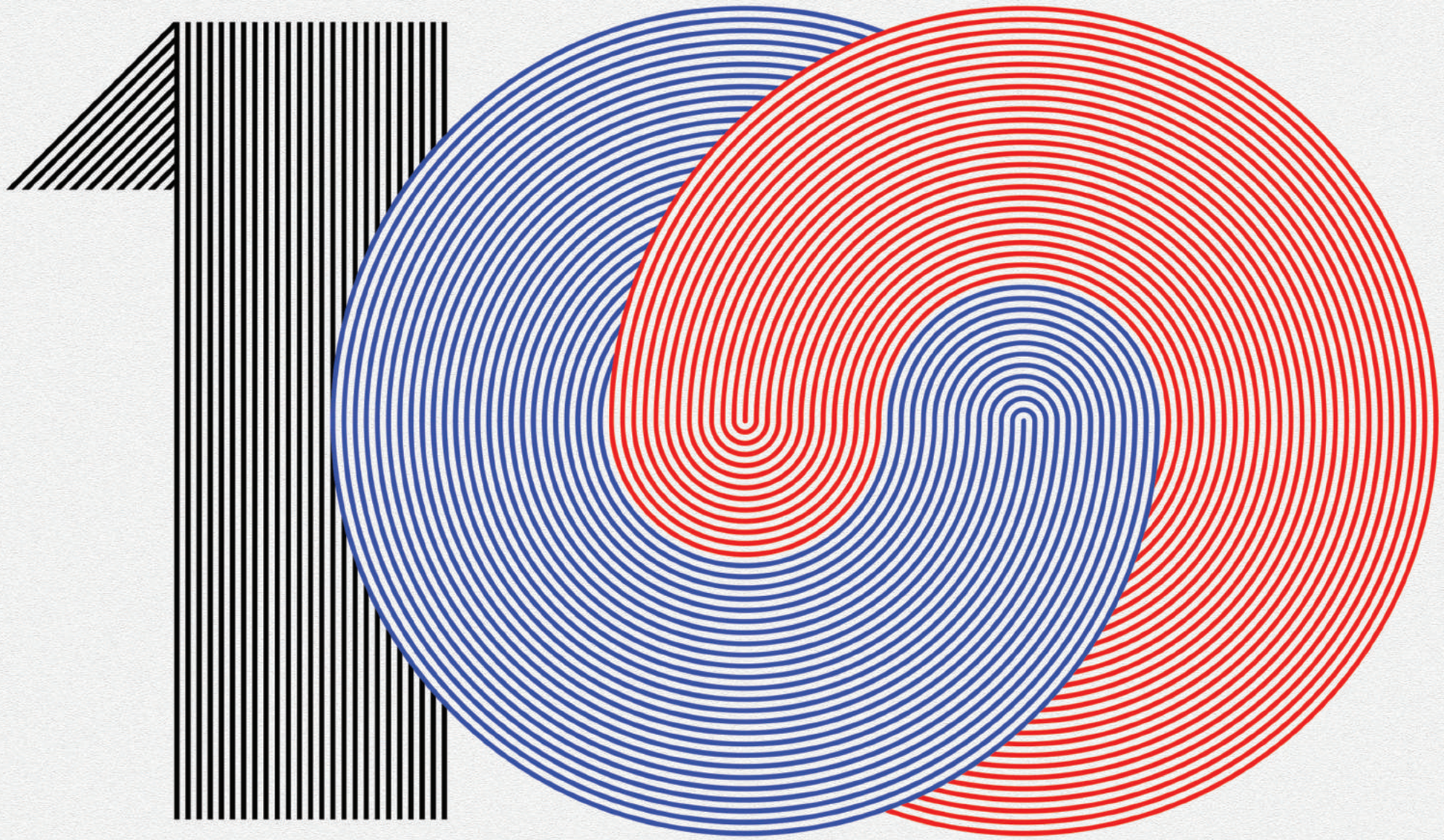
66 **백범의 궤적을 좇은 독립원정대 프로젝트(MBC 특별기획)가 남긴 것**
잃어버린 시간, 잊지 말아야 할 시간
양지선 단국대학교 연구교수

72 **오해와 이해**
"백범 김구가 공산주의자, '빨갱이'?"
최종등 자유기고가

78 **〈김구로드프로젝트〉 연출자 이동혁 감독**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던 백범 선생에 끌리다
글 **유연경** · 사진 **장병국**

백범의 길



독립원정대 프로젝트(MBC 특별기획)가 남긴 것

잃어버린 시간, 잊지 말아야 할 시간

글_ 양지선 단국대학교 연구교수



대한민국임시정부 마당로 청사 앞에 선 연예인 답사반의 모습이다. 사진은 지나간 시간의 흐름을 증언한다. 사진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사진 속 인물들이 어떻게 사라져갔는지를 말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 시간이 단절되지 않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또한 함께 증명한다. 같은 자리 그 곳에 오롯이 남아 있음을, 또 기억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백 년 전 백범 선생이 중국의 도포를 입고 선 그 곳에 지금은 박찬호 선수가, 또 배우 김수로가 서 있다.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이 견뎌야 했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체험하면서 그들도 어느새 독립운동가들의 마음과 눈매를 하게 되었다.

prologue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 방송사들이 앞 다투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방송하였다. 하지만 오랫동안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둘러싼 논쟁이나, 그 위상을 폄훼하는 논의들이 전개되는 등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하는 관심과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어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그러한 와중에 무겁지 않은 포맷으로 대중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를 알리고 그 감사함을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작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100년 전 이국땅에서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선열들의 시간을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고 한다. 특히 여느 프로그램과 달랐던 점은 기억에 대한 전달 방식이었다. 독립운동의 현장들을 보여주고, 역사적 사건을 설명함으로써 공간의 의미와 느낌을 일방적으로 규정짓는 것이 기존의 방식이라면, 이번 프로그램은 한정된 인원이기는 하지만 연구자,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 K팝 스타, 한류 배우 등이 답사반이 되어 100년 전 독립운동가로 분해 상해(上海), 중경(重慶) 등 임시정부가 활동했던 장소들을 방문해 독립운동가들의 지난했던 삶과 시간들을 체험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처음 제작진의 프로그램 참여 제의를 받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내가 그분들의 삶을 제대로 그것도 잘 전할 수 있을지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자신을 내던지고 독립을 위해 투신했던 그분들의 힘겨웠지만 영광스러웠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싶었다. 그것이 꼭 내가 아니고, 더 나은,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조금은 역할을 하고 싶기도 했다. 여말선초의 대학자 야은 길재가 남긴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 데 없다"라는 말처럼 임시정부의 인걸들 또한 모두 떠났지만,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중국 곳곳의 산천을 흐르며 그때의 시간들을 증언하고 있다. 하여 그곳에서 마음으로나마 그 분들과 함께 하고자 출연을 결정하였다.



두 번째 청사로 알려져 있는 하비로 청사가 있던 자리. 현재 주소는 회해중로(淮海中路) 651호이며, 한 의류매장이 들어서 있다.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

촬영은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상해와 중경에서 이루어졌다. 상해에서의 촬영은 모두 3일간이었다. 첫 날은 상해시기 임시정부의 활동 장소들을 둘러보았다. 먼저 도착한 곳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보경리(普慶里) 4호 청사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수립되었다.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첫째,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다. 10년 전에 상실한 국가의 이름인 대한제국에서 다만 정치체제를 제국이 아닌 민국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둘째,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 정부조직 구성과 내각 구성원을 선발하였다. 셋째 10개 조항의 임시헌장을 제정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는 제1조의 내용이다. 한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공화제 정부가 탄생하였기 때문이다.

임시정부는 김신부로(金神父路) 청사에 이어 하비로(霞飛路) 321호 청사를 사용하였다. 그러다 10월 17일 《상해일일신문》 보도로 인해 프랑스조계 당국에게 폐쇄명령을 받았다. 이후로는 여러 임시정부 요인들의 집을 떠돌며 회의를 하는 등 제대로 된 청사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안정적인 청사를 마련하게 된 것이 바로 마당로 보경리(馬浪路 普慶里) 4호 청사이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1926년부터 이곳에 모여 업무를 보았으며, 임시정부의 조직, 유지가 힘들었을 만큼 어려운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기도 하였다. 백범 선생의 『백범일지』 상권을 통해 그때의 힘든 시간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

보경리 청사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적지 않게 놀라게 된다. 명색이 정부청사인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화려하거나 웅장한 느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청사를 사용할 당시 30원이라는 임대료를 마련하지 못해 유지조차 어려웠다는 설명을 하면 금세 숙연해진다. 그 어려움을 어떤 마음과 의지로 견디셨던 것일까.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늘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백범의 가슴 아픈 가족 이야기

청사를 둘러본 후 영경방(永慶坊) 10호로 이동하였다. 이동 중에 임시정부가 왜 프랑스조계 안에서만 활동했는지를 이야기했다. 최준례 여사가 공공조계 폐병원에서 임종을 맞을 때도 백범 선생은 프랑스조계를 떠

나지 못했다. 그러나 최준례 여사는 끝내 남편을 불러 오냐는 물음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만큼 프랑스조계 밖은 위험했다. 그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프랑스조계가 어떤 이유로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보호해 주었는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단지 프랑스대혁명 정신이 자유, 평등, 박애인데 이를 내세워 정치범은 탄압하지 않았다고만 추측할 뿐이다. 독립운동가들 역시 정치범이었으므로 이곳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백범 선생 일가가 1922년부터 1926년까지 거주했던 현 태창로(太仓路) 181농(弄) 옛 영경방 자리에는 바베네(VA BENE)라는 음식점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가족들이 올라 다녔을 2층 계단만은 그대로였다. 최준례 여사는 이곳에서 낙상사고로 크게 다쳐, 결국 폐병으로 악화되어 1924년 타계했다. 최준례 여사는 임종 전 아직 어린 아들을 걱정했다. 연로한 곽낙원 여사가 키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그녀는 막내아들을 고아원에 맡겨줄 것을 부탁하였다. 하지만 손자 김신을 고아원에 맡긴 곽낙원 여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데려와 물을 끓여 먹이며 돌봤다. 임시정부를 이끄는 백범 선생 대신 어려운 집안 살림도 맡아야 했다. 시장에 버려져 있는 배춧잎을 주워 끼니를 때울 때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촬영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곳이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머물렀던 한 곳, 한 곳 아픔과 슬픔이 서리지 않은 곳이 없는 듯했다. 어머니를, 또 아내와 아이들마저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까지 백범 선생은 그렇게 임시정부를 지켜나갔다. 프로그램을 통해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그 역시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다. 처연히 개인의 모든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인지, 또 가족들의 지지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말이다.

백범과 윤봉길, 운명의 하루

임시정부와 관련된 장소들을 둘러본 후 연예인 답사단은 직접 임시정부의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빨래를 하고, 채소를 팔았다. 중국의 영화 황제로 불리던 한국인 배우 김염(金焰)이 되기도 했다. 낯선 땅에서 하는 독립운동 역시 그들에게는 생활의 일부였고 따라서 자금이 필요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일로 고단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독립이라는 목표가 있어 포기할 수 없었다. 연예인 답사단 역시 이날 하루 그들이 되어 모은 돈으로 당시 한국독립운동을 지원한 중국인의 후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이틀째 날은 한인애국단의 의거와 관련된 곳들을 직접 찾아가 보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당일을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다. 의거 당일 날 아침 윤봉길 의사가 백범 선생과 김해산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드셨던 것처럼 식사를 하고, 두 분이 작별을 고하며 함께 걸어 나오던 하비로도 걸었다. "훗날 지하에서 만납시다." 백범 선생은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담아 마지막 말을 건넸다. 그 마음을 아는 윤봉길 의사는 웃으며 백범 선생의 낡은 시계와 자신의 시계를 바꾸자고 제안하였다. 의거를 앞두고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작별을 고했던 두 분의 모습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답사단은 하비로에서 나와 백범 선생과 윤봉길 의사가 의거 전날 함께 점심을 했던 중국기독교청년회관,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가 의거 전에 한인애국단에 가입하고, 마지막 사진을 찍었던 한인애국단 본부 자리도 방문하였다. 이미 흔적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윤봉길 의사 의거의 기반을 마련해 준 이봉창 의사의 의거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일왕을 처단하기 위해 폭탄을 몸에 지니고 배에 올랐던 황포강의 부두를 찾았다.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되짚어보며 의거의 의미는 물론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는 시간이었다.



이봉창 의사가 1931년 12월 17일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탔던 부두의 현재 모습

답사단은 둘째 날의 체험들을 통해 다양한 자기만의 감정을 가지게 된 것 같았다. 배우 김수로는 "훗날 지하에서 만납시다"라는 백범 선생의 마지막 말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1932년 당시 윤봉길 의사와 나이가 가장 비슷했던 가수 공찬은 결혼해 아이까지 둔 아버지가 스스로 나라를 위해 죽음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럽고 한편, 죄송하다고 하였다. 이들이 찾아가는 과정과 그와 관련된 이야기 등을 직접 화면으로 보게 될 이들도 각자 자신의 처지에서 그들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이 안타까웠던 것은 모두 다 같았을 것이다.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상해에서의 촬영을 마친 우리는 중경으로 이동하였다. 이미 늦은 밤이었지만, 화려한 야경이 아름다우면서도 왠지 낯설었다. 중경은 중일전쟁 당시 국민당정부의 전시수도였고,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을 창설한 곳, 또 해방을 맞은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 머릿속 중경은 산비탈에 방공동이 즐비한 회색빛의 도시로, 늘 김인과 연관되어 더욱 암울한 이미지를 가졌다. 백범의 큰 아들 김인은 석탄 연기의 뿌연 공기로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 아버지 백범은 병든 자식을 두고도 차마 사적인 감정에 얽매여 그만을 살릴 수가 없었다.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해방을 맞은 곳이지만, 아들과 어머니를 잃은 중경은 아버지이자 아들인 백범 선생에게는 늘 마음 아픈 도시이지 않았을까 싶다.

부끄럽게도 나는 중경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달리 중경은 화려한 도시였다. 그 유명한 중경의 홍야동은 온통 붉은 빛의 조명으로 가득했고, 중국의 4대 직할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도로 옆 건물들은 하나같이 마천루를 자랑했다. 이곳에서 해방을 맞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을 하고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중경에 온 것이다. 이렇게 변해버린 곳에 임시정부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 안에 담고 있던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가 온전히 남아 있을까 하는 궁금증과 걱정으로 중경에서의 첫 날을 보냈다.

중경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을 맺게 된 것은 1939년 임시정부 요인들과 가족들이 이곳에 오기로 결정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중경에 정착한 것은 아니었다. 먼저 중경에서 120km 정도 떨어진 기강(綦江)에서 생활을 시작하였다. 전시(戰時) 중에 100여 명의 임



1


2


3


4

1 중일전쟁 당시 일본의 공습을 받은 중경의 모습
2 중경의 대표적 야경 명소로 알려져 있는 홍야동의 전경
3 수풀이 우거진 토교 한인촌의 모습
4 잡초가 무성한 화상산의 한인 묘지터 모습
5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에서 출연진 모두가 찍은 단체사진

시정부 가족들의 거처를 중경 시내에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나마 백범 선생이 먼저 선발대로 중경에 와 장개석(蔣介石)과 교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중국 측 지원으로 기강에 마련한 거처 가운데 한 곳이 바로 토교 한인촌이다.

토교 한인촌은 찾기조차 힘들 정도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재개발을 앞두고 마을 입구부터 차량 진입을 막아 놓은 상태였다. 폐허와 같은 모습, 잡초와 쓰레기로 가득한 비참한 상황을 보고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연예인 답사단과 함께 참배를 하고 토교 한인촌이라는 비석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다들 놀라고 안타까운 마음은 같았던 것 같다. 참배 후에도 제대로 기억하고 기리지 못했다는 죄송한 마음에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수십 년 이국타향을 떠돌며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해방을 앞두고 돌아가셨고, 지금은 유해조차 찾을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 땅에 묻혀 계시다는 사실이었다. 1939년 중경에서 가장 먼저 돌아가신 분이 바로 백범 선생의 모친 곽낙원 여사이다. 송병조 선생, 또 백범 선생의 큰아들 김인도 이곳에 묻혔다. 약 100여 분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확한 명단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우리와 중국의 국교가 단절되면서 이곳은 중국인들이 공동묘지로 쓰고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변하였다. 수십 년이 지나 쓰레기들이 쌓이면서 쓰레기 매립지가 되었다. 우리가 오랫동안 방치하면서 이렇게 변모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국교수립 이후에도 독립운동가들의 무덤이나 시신을 찾으려는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 않자 중국에서는 아파트를 건립하고 북으로 도로를 내, 그마저도 옛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중경의 한인들이 묻혀 있는 화상산 묘지 주변에는 봄마다 노랗고 작은 꽃이 많이 피는데, 중국에는 그런 꽃이 없다고 한다. 해서 중국인들은 그 꽃을 조선화라 부른다. 나라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넋이 조선화로 피어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란 과연 무엇일까?

중국 곳곳에 남아 있는 유적을 돌아보며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낱 지나간 역사 속에 자리한 옹색하고 초라한 이름이 아님을 다시금 깨달았다. 일본제국주의의 침탈과 압제를 극복하고 쇠망한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어, 어떻게 독립국가를 건설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저항했던 몸부림의 상징으로 남아


5

있었다. 일본이 이들의 희망과 노력을 좌절시켜 한민족을 영원히 자신들의 지배하에 예속시키고자 했지만, 낯선 타향에서 굶어죽고 병들어 죽어가면서까지 그 뜻을 굽히지 않았기에 가능하였다.

우리가 해방 후 분단의 비극 속에서도 자유와 민권, 민생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자유민주국가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40여 년 동안 일본제국주의의 압제와 탄압 속에서 지켜낸 가치가 1948년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기에 가능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족의 미래와 겨레의 자주독립을 갈망하며 노력했던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기관으로서 우리 민족이 함께 공유하고 지켜가야 할 소중한 정신적, 역사적 자산이다.

같은 장소라도 공간이 주는 느낌은 항상 같을 수가 없다. 답사단과 함께 찾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유적들은 나에게 새로운 울림을 주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자 찾아간 길이었지만 도리어 나는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반갑다. 와주어서 기쁘다… 다행이다… 보람이 있었구나!…” 그분들의 말씀에 눈물과 요동치는 가슴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다.

“백범 김구가 공산주의자, ‘빨갱이’?”

통일을 열망한 민족주의자에게 잘못 새긴 ‘주홍 글씨’

세계적인 탈냉전 · 탈이념의 시대가 도래한 지 오래건만 우리는 아직도 남북 분단의 질곡 속에서
‘매카시즘’이라 불려도 무리 없는 ‘레드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빨갱이’라는 규정은 가슴에 새겨진 ‘주홍 글씨’처럼 집단이 개인에게 가하는 천형과도 같다.
평생을 민족 독립과 조국 통일을 꿈꾸며 불꽃같은 삶을 살다간 백범에게
사회 일각에서 터무니없이 덮어씌운 ‘빨갱이’라는 굴레를 벗기는 일은
남북 평화 시대를 앞둔 후손의 마땅한 도리이기도 하다.

글_ 최종등 자유기고가



10만 원권 지폐 예상 도안


남북협상을 위한 출발을 앞두고 경교장에서 (1948년 4월 19일)

10만 원권 발행 취소의 해프닝

10여 년 전 이명박 정부 때 한국은행은 5만 원권과 10만 원권 지폐 발행을 추진했으나 5만 원권만 계획대로 발행하고 10만 원권은 나오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요청으로 10만 원권 발행을 유보했다”고 밝히고 뒷면에 들어가는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10만 원권 발행이 유보되자 당시 세간에서 진짜 이유는 10만 원권 전면에 들어가기로 한 백범 김구의 초상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유포됐다. 이명박 정권 출범과 함께 급부상한 뉴라이트 등 극우 세력이 “김구는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며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명백한 이유는 밝혀지지도 않았고 증거도 없지만 4·3사건이나 보도연맹 사건에서 보듯이 ‘빨갱이’라는 낙인만 찍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폭압적이고 단세포적인 현상에 비춰볼 때 추측 가능한 주장이다.

한 사람의 삶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드러난 행적뿐 아니라 그의 내면세계까지 두루 살펴봐야 한다. 백범이 공산주의자인가 하는 문제도 그의 삶과 사상의 궤적을 실증적으로 따라가 봤을 때 분명해진다. 평가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Fact)의 문제다.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는 물과 기름

‘치하포 의거’에서도 보이듯이 ‘모태 민족주의자’인 백범과 공산주의는 애당초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 그에게 지고지선(至高至善)의 가치를 지닌 민족주의와 민족을 초월한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의 단결과 계급 혁명을 주장하는 공산주의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었다.

『백범일지』와 ‘나의 소원’ 등에서 김구의 공산주의에 대한 생각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리 민족의 비운은 시대사상의 산물이다. 오늘날 청년들은 늙은이들을 노후니 봉건 잔재니 하며 비판하는데, 일견 수긍할 부분도 있지만 그들 또한 문제가 적지 않다. 주자의 방귀를 ‘향기롭다’고 하던 자들을 비웃던 입과 혀로 이제 레닌의 방귀는 ‘달콤하다’고 하고 있으니 청년들이여 정신 차릴지어다. 나는 결코 주자학의 신봉자도,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배척자도 아니다.”

(『백범일지』 하권)

백범 김구의 정치 이념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나라의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사는 체제를 이상으로 삼았다. 어떤 형태의 독재도 배격하는 그의 철학은 ‘나의 소원’에 잘 나타나 있다.

“오늘날 소위 좌우익이란 것도 결국 영원한 혈통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풍파에 불과하다. 독재 중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는 철학을 기초로 하는 계급독재다. 수백 년 동안 조선에 행하여 온 계급독재는 유교, 주자학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정치뿐 아니라 사상, 가정, 사회, 개인 생활까지 규정했다. 공산당이 주장하는 소련식 민주주의는 독재정치 중에서도 가장 철저한 것이어서 독재정치의 모든 특징을 극단으로 발휘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학설에 일점일획이라도 비판만 하는 것도 엄금하며 이에 위반하는 자는 죽음의 숙청으로써 대한다.”

공산주의로의 전향을 단호히 거절

기미독립운동에 힘입어 출범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계급과 정파, 이념을 초월하여 한 마음으로 국토 수복과 민족 해방을 위해 단결한 민족의 영도 기관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며 한 마음으로 뭉쳤던 독립지사들 간에 사상의 분열, 대립이 생겨났다. 사회주의 이념이 유입되면서 임시정부 내에서 민족주의니 공산주의니 하여 반목과 투쟁이 격화됐다, 심지어 수뇌부까지 의견이 갈려 대통령 이승만은 민주주의를 외치고 국무총리 이동휘는 공산혁명을 부르짖는 현상이 생겼다. 국무회의에서도 논쟁이 잦아 국시가 바로 서지 못했다.

당시 이동휘는 경무국장을 맡고 있던 김구를 공원으



경교장에서 열린 신탁통치 반대 시위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축사하는 김구(1948년 4월 22일)

로 불러내 공산주의로의 전향을 권고했으나 김구는 이를 매몰차게 거절했다. 다음은 『백범일지』에 수록된 둘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이다.

이동휘 : *"대저 혁명이란 피를 흘리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의 독립 운동은 민주주의 혁명에 불과해 이대로 독립한다 해도 다시 공산혁명을 해야 하겠으니 우리 민족에게도 큰 불행이 아닌가. 그러니 적은이(아우님)도 나와 같이 공산혁명을 하는 게 어떤가?"*

김구 : *"우리가 제3국제공산당(코민테른)의 지휘와 명령을 안 받고도 공산혁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동휘 : *"안 되지요."*

김구 : *"우리 독립운동은 대한민국 독자의 운동이요. 제3자의 지도나 명령에 지배되는 것은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우리 임시정부 헌장에 위배되오. 총리가 이런 말씀을 하심은 크게 옳지 않으니 나는 선생의 지도를 받을 수 없고, 또 선생께 자중하시기를 권고하오."*

임정 내 민족진영의 버팀목

민족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립은 날로 격화되며 임정은 사분오열 상태가 돼버렸다. 초기 좌익계열 독립운동이 득세한 것은 반식민지, 반제국주의 운동이 대일항쟁에 유용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산진영은 코민테른의 방침에 따라 독립운동을 공산혁명화하기 위해 민족진영의 와해를 기도했다.

그런 와중에 레닌이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식민지 민족은 사회운동보다 민족 독립운동을 먼저 하라"고 지시하자 공산계열들은 돌연 독립·민족운동을 주창하기 시작했다. 이에 민족주의자들도 그들을 배척할 이유가 없어져서 유일독립당 촉성회를 만들어 좌우합작을 시도했다. 그러나 공산진영의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이 단체는 흐지부지 와해되고 말았다. 이 운동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났으나 한 가지 소득이 있었으니 이동녕, 안창호, 김구 등 민족진영이 힘을 합쳐 공산진영에 맞서 1930년 1월 한국독립당을 출범시킨 것이다.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양 진영의 극심한 대립과 분열로 유명무실해졌으나 한국독립당이 홀로 남아 민족진영의 껍데기를 유지했다.

대립과 분열로 돈도 사람도 들어오지 않자 임시정부는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이 된다.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인 국무령제로 바뀌어졌으나 번번이 내각 조직에 실패해 국무령에 오를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다. 이에 의정원 의장이었던 석오 이동녕이 백범을 찾아 국무령에 취임하기를 권유했다. 백범은 출신 성분, 자신의 능력 등을 이유로 고사했으나 이동녕의 강권에 못 이겨 국무령에 취임한다. 당시 임정은 극심한 재정난으로 청사 임대료도 못 낼 형편이었다. 백범 자신도 동포 집을 전전하며 끼니를 해결하는 상거지 생활을 했으나 꿋꿋이 임정을 지키며 이봉창·윤봉길 의거를 기획하고 실행해 꺼져가던 독립운동의 불꽃을 되살렸다.

마침내 좌우합작 단일 대오 형성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32년 윤봉길 의거 후 상해를 탈출, 일제의 마수를 피해 중국 각지를 떠돌았다. 100명이 넘는 동포와 함께 항주-가흥-진강-남경-한구-장사-광주-유주-기강 등을 경유해 중국의 전시 수도 중경에 도착하기까지 5,0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먼 거리를 백범은 동포들을 보살피며 임시정부를 이끌었다. 그런 와중에서도 임시정부는 끊임없이 좌익으로부터 해체 요구에 시달렸다. 1935년 의열단 등 5개 단체가 합쳐 결성된 조선민족혁명당은 김원봉이 주도하여 임정무용론을 주장하며 해체를 요구했다. 당시 7인의 국무위원 중 김규식, 조소앙 등 5명이 국무위원 직을 사임하고 조선민족혁명당에 뛰어들어 임정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돼버렸다. 백범은 열일을 제쳐두고 항주로 달려가 이동녕, 조완구 등으로 자리를 메워 국무회의를 열어 임정을 지켜냈다.

민족진영은 이에 임정을 뒷받침해줄 외곽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해 김구를 이사장으로 하는 한국국민당을 출범시켰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독립할 수 있는 호기로 보고 백범은 해묵은 과제인 좌우 통일전선을 다시 추진한다. 백범이 통일운동을 추진하자 우익진영 내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았다. 백범을 후원하던 미주 교포들도 "공산주의자들과 타협하려 한다"며 비판했으나 그는 민족독립이라는 지고지선의 가치 아래 좌우를 가리지 않고 뭉쳐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를 계속 추진했다. 애당초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 민족진영 3당과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청년전위동맹, 조선혁명자연맹 등 4개 좌익정당이 7당 통일회의를 열었으나 좌익세력의 이탈로 민족진영 3당만이 통합하여 한국독립당으로 재탄생했다.

임정은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조직과 체계를 빠르게 정비해 나가며 광복군도 창설했다. 연합국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임정의 권위와 위상이 높아지자 그

백범이 통일운동을 추진하자 우익진영 내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았다.
백범을 후원하던 미주 교포들도 "공산주의자들과 타협하려 한다"며 비판했으나
그는 민족독립이라는 지고지선의 가치 아래 좌우를 가리지 않고
뭉쳐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를 계속 추진했다.
애당초 민족진영 3당과 4개 좌익정당이 7당 통일회의를 열었으나
좌익세력의 이탈로 민족진영 3당만이 통합하여 한국독립당으로 재탄생했다.



백범이 만년에 즐겨 쓴 휘호 '사무사(思無邪)'

토록 임정에 반대하고 통합에 비협조적이던 공산진영이 임정에 합류하며 민족독립 단일 대오가 형성됐다, 1942년 5월 좌익의 무장 조직인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했다. 보궐 선거를 통해서는 좌익 인사들이 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돼 통일의회가 성립되고 이어서 좌우연립정부가 출범한다.

이념과 목표, 노선과 방법이 각양각색이었던 좌우 세력들을 하나로 묶는 과업을 이룬 데는 백범의 민주주의적 열린 지도력이 크게 작용했다. 동조하고 지지하지는 않으나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와 설득을 포기하지 않은 끈기와 열정이 이뤄낸 결과였다.

해방은 됐으나 남북분단·신탁통치에 좌절

일본의 패망으로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맞이한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념 대결의 장으로 변했다. 서안에서 광복군의 본토 상륙작전 훈련을 시찰 중이던 백범은 일본의 항복 소식을 접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실망에 빠진다. 수년간 준비해온 고토 회복 작전이 실행 직전에 무산됐기 때문이다. 수년 간 들인 공로가 물거품이 됐다는 아쉬움보다 종전 뒤 승전국의 입장에서 당당히 고국으로 돌아가 자주독립 국가를 세우겠다는 원대한 계획이 무산됐다는 아픔이 더 컸다. 또 승전에 기여한 바가 없어서 국제간 발언권이 없을 것을 우려했다.

백범의 불길한 예상은 현실로 나타났다. 북위 38도선을 분계선으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진주하여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 시작했다. 임시정부는 해방 후 곧바로 귀국하려 했으나 미군정은 임정을 정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입국을 불허했다. 백범 등 임정 요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며, 귀국 이후에도 정부로서 행세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하지 사령관에게 제출하고서야 입국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암울했고, 미래는 암담했다. 1945년 모스크바 3상회담에서 한국의 신탁통치가 결의되자 백범은 즉각 대대적 반탁운동에 들어간다.

하지 사령관은 백범을 불러 반탁운동을 '미군정에 대



38선에 선 김구. 왼쪽은 선우진, 오른쪽은 김신(1948년 4월 19일)

한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경고한다. 이를 계기로 백범은 미군정과 멀어지고 점차 소외된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백범은 1948년 1월 28일 'UN한국위원회'에 '미소양군 철수 후 UN 감시 하 남북 지도자들의 합의에 의한 전국 총선'을 골자로 하는 '6개 항 의견서'를 제출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던 이승만의 한국민주당은 백범을 '크렘린 궁의 한 신자'라고 맹렬히 비난한다. 백범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갈 수 있는 빌미를 잡은 것이다. 이에 백범은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란 성명서에서 단독정부 수립 주장 세력을 친일분자들로 비판했다.

"우리나라 남북에서도 외부 세력에 아부하는 자들은 '남정(南征), 북벌(北伐) 하면서 전쟁을 주장한다. …그들은 전쟁이 난다 해도 자신들의 자손만은 징병도 징용도 면제될 것으로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왜정 하에서도 그들에게는 그러한 은전이 있었던 까닭이다." 그는 이어서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며 남북통일의 의지를 굳게 한다.

백범이 만년에 즐겨 쓴 휘호가 '사무사(思無邪)'다. 사무사는 공자가 〈시경〉의 시를 한 마디로 요약하며 사무사, 즉 '마음에 사특함이 없다'고 평가한 후 현실의 삿된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덕목으로 강조돼왔다. 사무사에는 백범의 남북합작 노선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반대하는 세력과 권력을 탐하는 무리들이 단정노선에 참여하고 있다는 비판의 뜻이 담겨져 있다.

동족상잔의 우려가 현실로

'공산주의자'라는 터무니없는 공격까지 받아가며 김규식과 함께 참석한 평양 남북연석회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갖고 돌아오지 못하자 정적들로부터 '김일성에게 이용만 당했다'는 등의 거센 공격을 받았으나 백범은 굴하지 않고 외세를 배격한 자주적 민족통일을 계속 주장했다. 그는 자주적 민족통일이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 동족상잔 전쟁 가능성을 들었다. 백범이 안두희의 흉탄에 쓰러진 1949년 6월 26일, 그로부터 정확하게 1년에서 하루 빠진 1950년 6월 25일 백범의 우려대로 역사상 유례없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시작됐다.

임정 시절 우파 민족진영 지도자로서, 해방 후 진정한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통일 민족주의자로서의 삶에서 백범 김구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할 만한 대목은 그 어디에도 없다. 친일 부역자에게 마녀 재판 식 '빨갱이 사냥'은 손쉬운 방패막이로, 권력자에게는 저비용 고효율 통치 기술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백범을 그 잣대로 재단한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지긋지긋한 대결의 시대에서 남북 평화의 시대로 전환하는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억지로 새겨놓은 '공산주의자'라는 '주홍 글씨'를 지우고 백범의 민족주의를 제대로 평가하고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던 백범 선생에 끌리다

<김구로드프로젝트> 이동혁 감독

시간이 흘러도 고귀한 정신은 영원하다.
나라를 사랑하던 백범 선생의 마음이
현대에도 생생히 살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책으로 영상으로 백범 선생을 만났던
어바웃클래식그룹 이동혁 감독.
그는 문화대국을 꿈꾸던 백범 선생의
정신을 직접 실천해 옮기고 있는
행동가이자 음악가이다.
4년 간의 긴긴 여정 끝에 올해 완결되는
음악 총체극 〈김구로드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이동혁 감독을 만나보았다.

글_ 유현경 · 사진_ 장병국

음악가, 문화대국을 꿈꾸는 백범을 만나다

한 예술가의 마음속에 어느 날 백범 김구 선생이 마지막까지 바라던 소원이 성큼 다가왔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 '나의 소원'에서

세상을 행복하게 해줄 문화의 힘을 가진 문화대국. 예술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던 예술가의 마음이 움직였다. 음악만 알던 예술가는 백범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콘트라베이스 연주자이자 '어바웃클래식그룹'을 운영하는 이동혁 예술총감독이다. 어바웃클래식그룹은 2007년 창단된 어바웃콘트라바쓰앙상블을 확장한, 국내 최초의 옴니버스형식의 클래식전문단체로서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융성과 클래식음악의 르네상스를 꿈꾸고 있는 단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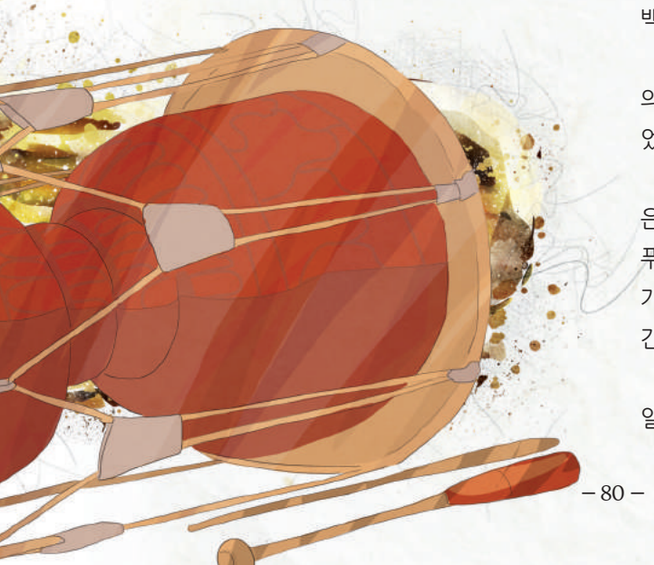
"음악을 업으로 삼아, 음악만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음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렴풋하게 생각을 하긴 했지만요. 즐겨 보던 유튜브에서 백범 선생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어요. 문화로 행복해진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고 그 길로 실행에 들어간 것이 〈김구로드프로젝트〉입니다."

2016년 백범 김구 탄생 14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김구로드프로젝트〉는 백범의 정신과 삶을 음악과 연극, 영상이 결합된 모노드라마형식으로 표현한 클래식 총체극이다. 백범이 1896년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복수를 위해 일본 육군 중위 스치다를 처단하고 체포돼 인천감리서에 투옥된 뒤 탈옥, 도피 생활을 했던 백범의 발자취를 따라 만들어졌다. 서울은 물론 부산, 공주, 무안, 목포, 강진, 진해, 제주도 등 전국을 일주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동혁 감독은 조국의 자주 독립과 더불어 백범 선생이 가장 소망했던 '문화대국의 꿈'을 국민들과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알리고자 이 거대한 프로젝트 공연을 기획했다. 2016년부터 총 20회에 걸쳐 무대에 올려졌고,







김구로드프로젝트 시즌 1이 완결되는 해이자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3월 공주 공연과 4월 서울과 인천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더욱 왕성하게 펼칠 예정이다.

역사와 음악의 만남 <김구 아리랑>으로 시작하다

이 프로젝트의 처음 모습은 2016년 8월 선보인 〈김구 아리랑〉이었다. 백범 선생이 조국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쉼 없이 넘겨야 했던 고비의 순간을 아리랑고개로 정하고 아리랑의 참 정신을 담은 음악극이다.

"아리랑고개는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마지막 고비, 꼭 극복해야 할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을 위해 긴 세월 동안 어떤 어려움도 감내해온 그분과 잘 맞는 모티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서이기도 하고요. 음악적 완성도는 물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원래 〈김구 아리랑〉은 단발성 공연이었다. 역사와 음악의 만남이라는 색다른 시도였고, 어떤 지원 없이 예술가 자신들의 힘만으로 완성해내야 하는 상황이라 시도만으로도 용기였다.

"역사적 의미를 담고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저희 그룹 예술가들의 재능과 공부, 노력은 충분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자본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이라 홍보조차 여의치 않았어요. 덕분에 첫 공연은 고스란히 손해로 남았죠. 제가 좋아서 벌인 일이었지만, 사실 그때는 백범 선생이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하~."

그런데 원망과 어려움은 아이러니하게도 전남 보성의 백범김구은거기념관에 들른 후 더 큰 에너지로 바뀌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 백범 선생이 기거하셨을 작은 방에서 선생을 마주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푸념 아닌 푸념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털어내고 나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결국 한 번으로 그쳤을 공연은 4년 장기간의 〈김구로드프로젝트〉로 새로 태어납니다."

우연처럼 시작된 일이었지만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었기에 동력을 얻어 완성되었고, 뜻을 같이하는 동



료 예술가들의 의기투합으로 더 큰 프로젝트가 되었다고 이동혁 감독은 말한다.

백범 선생에게 얻은 삶의 화두, 삶의 전환점

〈김구로드프로젝트〉도 여전히 아리랑이 주요한 모티브다. 아리랑 비가, 6대의 콘트라베이스와 플룻을 위한 상주아리랑, 산아, 두 대의 콘트라베이스와 대금을 위한 정선아리랑, 6대의 콘트라베이스를 위한 대한제국애국가, 홀로 아리랑, 6대의 콘트라베이스,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긴 아리랑, 음악으로 하나되리 등이 연주된다. 특히 연주되는 곡들 모두 위촉 창작 작품으로 이루어진 점과 쉽게 접하기 어려운 콘트라베이스 앙상블 연주라는 점도 눈 여겨 볼만하다.

"선생님 키가 구척이라 할 만큼 크셨잖아요. 콘트라베이스 크기도 구척이고 악기가 가진 무게감도 선생님과 어울린다고 생각했죠."

음악 총체극인 만큼 연주뿐 아니라 연기자가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공연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의 역사적 현실을 들려주는 전문가 해설도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백범의 정신을 알리는 의미 찾기는 물론 대중 눈높이에 맞추고자 하는 세심함과 노력들이 완성도를 높였다. 초등학생부터 어르신, 그리고 백범 선생을 잘 모르는 탈북민 등 각계각층의 관객들이 공연을 찾았고, 클래식은 어렵다는 막연한 선입관은 감동으로 바뀌곤 한다고.

전국을 순회하며 매번 새로운 관객, 새로운 환경에서 진행되는 공연인 만큼 에피소드도 가득하다. 공연 장소가 변경되는 돌발 상황에서는 오히려 학생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몰입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공연마다 지역의 전통 아리랑을 발굴해 지역 예술가 및 청년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무대에 올린다는 점이다.

"첫 공연인 〈김구 아리랑〉 이후 17곳의 공연에서 모두 17곡의 지역 아리랑이 재탄생되었습니다. 3월 공주에서의 공연은 특히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공연의 일환으로 초청받은 무대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그동안 해설로 채워졌던 부분이 공주시 인사와 시민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어 더 재미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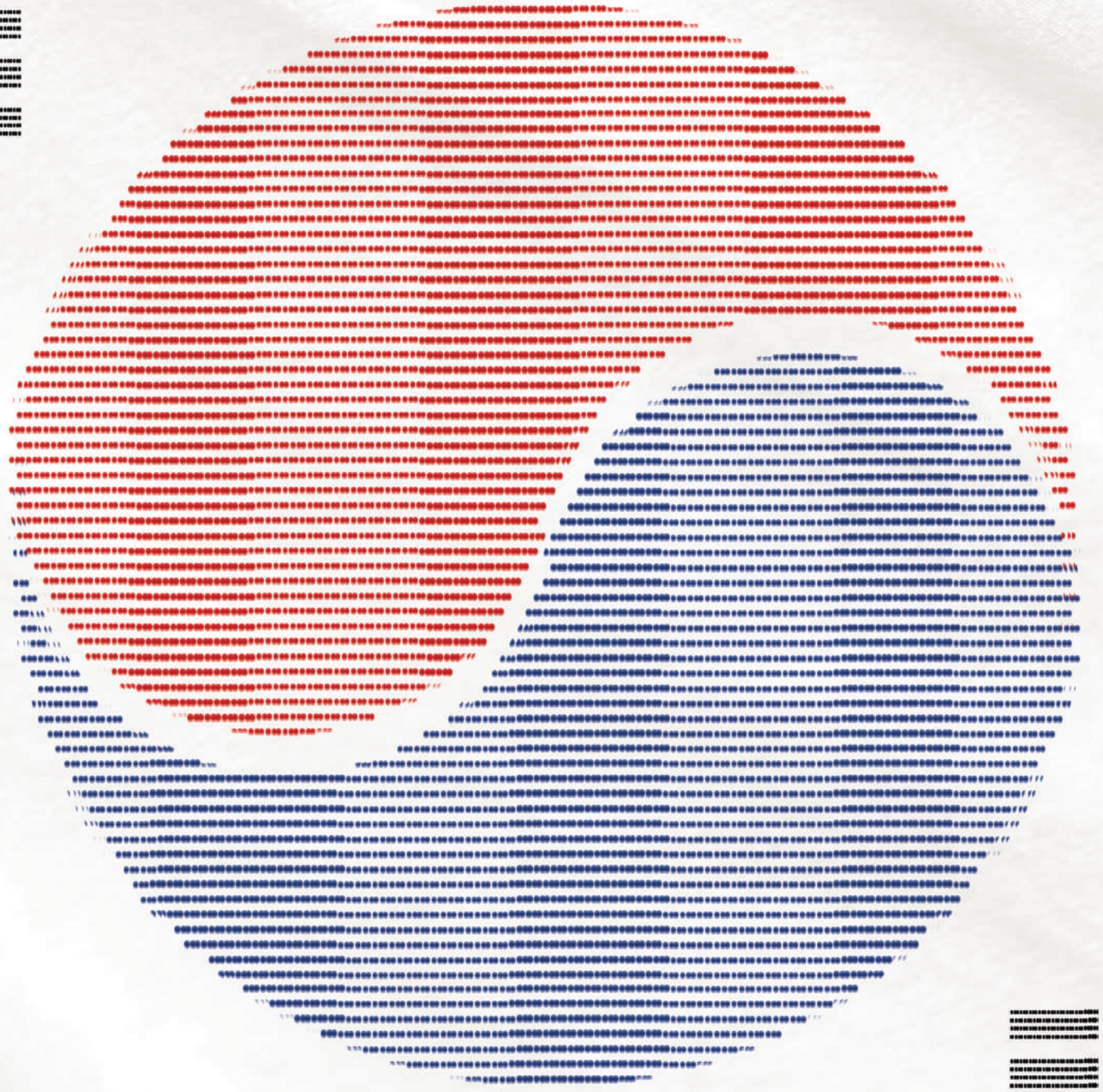
음악으로 백범 선생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 문화대국으로 가는 물꼬를 트고자 노력해온 이동혁 감독. 백범의 뜻처럼 문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그의 삶에도 백범 선생으로 인해 큰 변화가 생겼다고 말한다.

"선생님과의 만남으로 청년 특히 청년 예술가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재능을 펼칠 장을 만들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그 바람이 실현되어 올해 서초구청과 어바웃클래식그룹이 함께 마련한 청년예술인을 위한 축제 "서초실내악축제"가 진행됩니다."

2016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김구로드프로젝트〉 시즌 1은 올해 완결된다. 3월 5일 공주문예회관에 이어 4월 5일 서초문화예술회관, 4월 9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4월 13일 인천 자유공원 특설무대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더 많은 지역을 찾아 공연으로 관객과 만나길 희망하고 있다.

백범의 뜻을 좇아 클래식음악으로 문화대국을 만들고자 나선 이동혁 감독과 어바웃클래식그룹. 문화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풍요로운 문화 속에서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로 인해 먼 곳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실 백범 선생을 떠올려 본다.

백범의 꿈



84 **백범을 그리다**
그의 애민정신이 깃든 곳 '광주백범기념관'을 가다
글 · 사진 **이시목** 여행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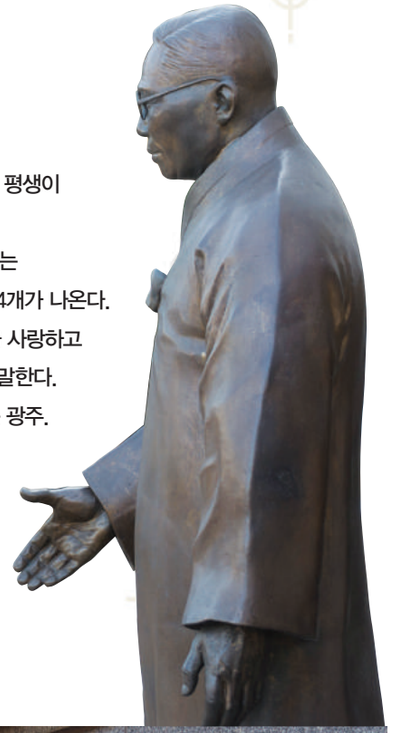
90 **시대 돋보기**
풍요로운 삶을 버리고 조국을 택한, 우당 형제들
황원섭 우당기념사업회 상임이사

96 **백범의 교육론**
백범과 건국실천원양성소
김형목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위원

102 **이달의 독립운동가(1월~3월)**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끈 위대한 영웅들
국가보훈처 제공

그의 '애민정신'이 깃든 곳

광주백범기념관을 가다



많은 이들이 백범을 말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들이 백범을 말하는 이유는 '그의 평생이 의로웠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의기 안에서는 국가와 사람이 늘 함께 했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이 그를 말할 때 즐겨 쓰는 단어 중 하나가 '애민'이다. 어쩌면 '애국' 다음으로 많이 회자되는 말일지도 모르겠다. '애민'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비슷하지만 묘하게 다른 의미의 단어 4개가 나온다. 哀愍(불쌍하고 가엽게 여김), 愛憫(불쌍히 여겨 사랑함), 愛民(백성을 사랑함), 愛愍(손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줌). 이 중 선생의 '애민'은 어느 쪽이었을까. 사실 위정자 누구나 '애민'을 자주, 그리고 쉽게 말한다. 허나 애민이란 말의 뜻은 이를 말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이다. 그래서 찾았다. 목적지는 광주. 광주는 백범의 '애민정신'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 만난 그의 '애민'은 위의 단어들과는 그 결이 달랐다. 그의 애민은 민(民)과 동떨어져 애잔히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앞서 걷거나 함께 걷거나 기꺼이 나누는 것'이었다. 그것이 진 자리건, 낮은 자리건, 아픈 자리건, 슬픈 자리건, 험한 자리건 가리지 않고…. 쟁족(爭足)이었다.

글 · 사진_ **이시목** 여행작가



학동공원

선생은 늘 신세 진 이들에게 보은하며 살았다. 1946년 삼남지방을 다시 순회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임정의 모든 것을 정리해 해방 정부에 이양하고, 윤봉길·이봉창·백정기 세 열사의 유골을 운구해 와, 용산 효창원에 손수 봉안한 뒤였다. 그때 그의 나이 일흔한 살이었다. 인천 감리서를 탈옥해 잠행 다닐 무렵의 그가 스물세 살이었으니, 얼추 반세기가 지난 후였다. 그 반세기 동안 선생은 오로지 나라의 독립만을 소원했고, 간절히 바랐기에 긴 시간 지난하게 싸웠다.

순회는 제주에서부터 시작됐다. 이어 부산과 진해를 거쳐 통영(한산도)~여수~순천 등지를 지나 보성에 다다랐고, 광주엔 그해 가을 무렵 닿았다. 선생은 『백범일지』를 통해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보성을 떠나 광주까지 가는 사이에 환영은 이루 언급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역로마다 수많은 동포들이 대기·환영하니, 어떤 날은 3, 4차를 경유한 적도 있었다." 광주와의 인연은 이후 맺어졌다. 『백범일지』에 "이로부터 며칠 후 광주에 도착하여보니, 도처에서 동포들이 주는 각종 기념선물·해산물·육산물·금품 등을 종합한 것이 차에 가득 찼다. 광주에 전재민이 많다는 말을 듣고 시장을 초청하여, 다소간 전재민을 돕는 데 보태어 쓰라고 부탁하여 주고 광주 환영회를 마쳤다"고 기록돼 있다.

광주의 전재민촌은 이렇게 조성됐다. 선생이 건넨 기탁금에 지역 유지들의 헌금이 더해진 결과였다. 이 정착촌에 선생은 '가난하지만 평화롭게 살라'는 뜻의 '백화(百和)'라는 이름을 붙였다. "듣기로는 방 한 칸에 부엌 한 칸 겨우 딸려 있는 남루한 집이었다고 해요.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고, 집들이 얼마나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지 옆집에서 소곤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몸 하나 누일 집이 있어 아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백화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이덕신(31) 씨가 말했다. 그는 백화마을에 살던 전재민의 후손



광주백범기념관







광주백범기념관

⇦ 기념관에 남아있는 전재민촌 사진. 한 지붕 아래 여섯 가구가 나란히 이어져 있었다.





이다. 그에 따르면 백화마을을 이루던 100여 호의 집들은 1992년 백화아파트가 들어서며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대신 "2015년 광주백범기념관이 세워져 백범의 정신과 고향마을의 흔적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기억은 그렇게 기록으로 남았다.

"나라를 책임진 사람이나 가정의 가장은 적게 가진 것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과 가족에게 고루 나눠지지 못함을 먼저 걱정해야 한다." 선생은 평소 논어 「계씨」편에 나오는 이 휘호를 통해 나누는 삶을 말했고, 나누는 것에 있어 특별히 균등할 것을 역설했다. 이는 '정치, 경제, 교육에서 균등을 이루어야 한다'는 삼균주의와도 그 뜻이 통한다. 품은 뜻이 이러하였기에, 선생은 광주를 포함한 어느 자리, 어떤 상황에서건 기꺼이 고르게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테다. 이것이 광주에서 만난 그의 '애민정신'이었다.

선생은 1948년 10월 1일 광주를 다시 찾았다. 대성초등학교에서 환영회가 있은 지 2년째 되는 해였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의 정부를 수립한 직후였고,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때였다. 이때 선생은 광주극장에서 열린 전남 '삼균주의청년단' 개소식에 참석해 평화통일을 말했다. 더불어 10월 3일에는 독립운동과 나환자들을 위해 헌신했던 최흥종 목사를 만나 '화광동진(和光同塵)'이라는 휘호를 남겼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중략) 힘써 행하는 사람은 뜻이 있는 사람이다'란 내용이 담겨 있는 글이다. 생각해보면 선생은 동학 접주일 때부터 7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나라의 독립만을 소원했고, 스스로를 담금질하며 자주독립 한 길만을 줄기차게 걸었다. 뜻이 있다면 누구보다 앞서 실천했고, 가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건 고르게 나누며 살았다. 광주 땅에서는 이런 선생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백범의 흔적을 찾아 광주 땅을 밟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념관에 서면 선생의 온 생이 보여

기념관부터 찾았다. 2015년 5월에 준공된 광주백범기념관은 백화마을 터에 건립됐다. 한 지붕 아래 여섯 가구가 마치 마구간처럼 나란히 이어져 있어 '말집'이라 불렸던 곳이지만 지금 백화마을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그 한없이 낮고 좁았을 집들의 흔적은 다만 기념관에 기록으로 남았을 뿐, 주위론 고층아파트만 빼곡했다. "그나마 이 공원이 있어 숨쉴 만하지요. 느긋하게 돌아보면 선생의 뜻이 담긴 휘호도 있고, 광주천 봄바람도 살살 불고 해 좋아요." 학동공원을 천천히 둘러보던 노인이 들으란 듯 말란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전재민촌을 잘 알고 있는 듯했다. "저기쯤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하지만 노인은 지금 백화아파트에 살지 않는다고 했다. "고향이 그리울 때 한 번씩 찾아 휘돌고 가는 게 전부"라고. "그래도 이 공원과 기념관이 생겨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며 김구 선생이 남긴 휘호 중 하나를 나직하게 읊조렸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길이) 되리니." 그의 목소리가 매화 핀 공원 일대를 향기처럼 흘렀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자주 하던 말씀이 있었어요. 김구 선생 덕분에 추위를 피했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까웠을 텐데 어떻게 본인이 받은 정치후원금 전액을 내놓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기념관 입구에 있는 김구 선생의 동상을 보며 노인이 말했다. "아무튼 대단한 분이었다"는 말을 몇 번이나 되뇌며 선생(동상)의 손을 덥썩 잡았다. 선생의 동상은 누군가를 반기는 듯 환한 얼굴이었고, 악수를 청하는 모습이었다. 높은 단상에 위압적인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아 어쩐

그는 해방 조국에서 무관(無冠)의 몸으로 통일운동에 헌신하며 다시 낮은 자리로 임했다.
동시에 정치후원금이 생길 때마다 전재민들을 위한 주택을 마련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백범학원'과 '청암학원' 같은 배움터를 개원해 지식을 균등하게 나누는 일에 힘썼다.
광주백범기념관엔 그의 '민(民)과 같은 자리에서 앞서 걷거나 함께 걸으며 기꺼이 나누는
애민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낮은 자리에서 참으로 높게 빛났던 별이다.

지 오래 바라보기 좋았다.

전시관은 2층에 있었다. 선생의 생애와 활동이 시대순으로 비교적 자세히 설명돼 있었고, 『백범일지』 복제본과 영인본이 진열돼 있었다. 영인본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선생의 육성을 상상했다. 청년 김창수와 일흔한 살의 백범이 오버랩되는 순간이었다. 이는 영상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영상실에서는 선생의 육성을 실제들을 수 있었다. 선생은 이 나라 젊은이들에게 "물 흐르는 대로 둥둥 떠다니는 죽은 고기가 되지 말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산 고기가 되어야 한다."며 역수어(逆水漁)정신을 강조했다. 곳곳에서 쟁족이란 단어도 만났다. 백범이 평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년들에게 강조했던 쟁족(爭足)은 서로 우두머리가 되려고 싸운다는 의미의 쟁두(爭頭)에 반대되는 것으로, 서로 머리가 되려고 싸우지 말고 발이 되려고 노력하라는 뜻이다. 즉 낮고 힘든 일을 서로 다투어서 하는 것이 바로 쟁족이다.

발이 되려고 서로 아래로 내려가면 발이 많아 죽어서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 문득 '스스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자처하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쟁족한 이가 바로 백범일 테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1945년 11월 환국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해방 조국에서 무관(無冠)의 몸으로 통일운동에 헌신하며 다시 낮은 자리로 임했다. 동시에 정치후원금이 생길 때마다 전재민들을 위한 주택을 마련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백범학원'과 '청암학원' 같은 배움터를 개원해 지식을 균등하게 나누는 일에 힘썼다. 광주백범기념관엔 그의 '민(民)과 같은 자리에서 앞서 걷거나 함께 걸으며 기꺼이 나누는 애민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낮은 자리에서 참으로 높게 빛났던 별이다.

광주에서 만난 일흔 살 즈음의 백범

대성초등학교도 찾았다. 그곳에서 일흔한 살의 백범을 만났다. 텅 빈 운동장에서 잠시 상상했다. 들끓는 환영인파 속에서도 선생은 자만하지 않고, 가난한 전재민들의 삶을 보듬었다. 대성초등학교에서 광주극장까지는 백범이 오갔을지도 모를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1.3km 거리쯤에 광주극장이 있었다. 광주극장은 국내에 유일하게 남은 단관극장으로, 1935년에 개관해 올해로 84주년을 맞았다. 그 낯설도록 오래된 풍경 안에서 백범의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선생은 남과 북의 대립을 안타까워하며 평화통일을 역설했다. 선생이 삶의 마지막에서 추구했던 통일국가는 아직까지 미완의 과제다.

올해는 선생이 서거한 지 70주기가 되는 해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고,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되짚어보면 멀고도 험난한 노정이었다. 표지판도 안내인도 없는 길을 백범은 스스로 길을 내며 한 걸음 한 걸음 고단하게 디뎌왔다. 디디는 걸음 걸음마다에서는 낮은 자리를 자처하고 기꺼이 나누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한결같이 올곧았던 삶 앞에 두 손 가지런히 모으고 잠시 묵념하며 그를 기렸다. 그는 청년시절에도 빛났고 일흔 살 즈음에도 빛나는 민족의 별이었다.



대성초등학교


광주천



광주극장

풍요로운 삶을 버리고 조국을 택한, 우당 형제들

**"동서역사에서 국가가 망할 때 나라를 떠난 충신열사가 수백, 수천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우당 일가족처럼 육형제, 전 가족 사십여 명이 한마음으로 결의하고 일제히 나라를 떠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장하다! 우당의 형제는 참으로 그 형에 그 동생이라 할 만하다. 육형제의 절의(節義)는
참으로 백세청풍(百世淸風)이 될 것이니, 우리 동포의 가장 좋은 모범이 되리라." – 월남 이상재**

글_ 황원섭 우당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우당 선생과 육형제는 어떤 분인가?

우당 이회영[友堂 李會榮(1867-1932)] 선생은 독립운동의 노선으로 보면 무장투쟁론자로서 독립운동의 요람이라는 신흥무관학교 설립을 주도한 분이며, 1932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중국 여순감옥에서 일찍이 순국하셨기 때문에 세인들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8·15해방 직후 남북분단과 6·25 전쟁을 계기로 극단적인 반공주의 풍조가 팽배하던 권위주의 시대에는 김일성이 무장투쟁을 명분으로 북한 정권을 수립하여 무장투쟁에 관한 연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후 공산권이 몰락하고 1990년대 초에 중국과 러시아의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만주와 연해주를 왕래하며 무장투쟁을 연구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 교과서에도 무장투쟁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우당 선생의 집안을 소개할 때에 삼한갑족(三韓甲族)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세 있는 집안이란 뜻이다. 우당 육형제는 임진왜란 시기에 일등 공신이었던 백사 이항복의 11대손으로, 백사에서 우당까지 10대에 걸쳐서 아홉 분의 영의정과 한 분의 좌의정을 배출하며 능히 삼한갑족이라 불릴 만한 권세를 누렸다. 우당의 부친은 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이유승(李裕承) 대감으로 여섯 분의 아들을 두었다. 첫째는 이건영(李健榮 1853~1940), 둘째는 이석영(李石榮 1855~1934), 셋째는 이철영(李哲榮 1863~1925), 넷째는 이회영(李會榮 1867-1932), 다섯째는 이시영(李始榮 1869~1953), 여섯째는 이호영(李護榮 1885~1933)이다. 이분들은 서울 명례방(현, YMCA 자리)에서 태어났다. 둘째인 이석영 선생은 고종 때 영의정을 역임한 이유원(李裕元) 대감의 양자로 출계했다. 육형제 전 가족이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했지만, 8·15해방 이전 모두 별세하고 유일한 생존인 이시영 선생이 초대 부통령을 역임했다.

조선 시대에는 나라에 공을 세우면 땅으로 포상하였기에 삼한갑족이라면 당연히 재벌급의 자산가일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이유원은 당시 최고 자산가 중 한 사람이었다. 황현(黃玹)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 의하면 경기도 양주에서 한양까지의 80리길 언저리 토지 전부가 이유원 소유라는 소문도 있었다. 이 땅은 이석영 선생에게 모두 상속되었다.

지금으로부터 오십 년 전, 1969년 월간지 《신동아》는 우당 선생의 셋째 아들 이규창(李圭昌) 선생과 인터뷰를 했다. 망명 당시 육형제가 가지고 간 돈이 40만 원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600억 원쯤 되는 돈을 갖고 망명했다고 기록했다. 요즘 언론 보도나 방송에 우당 육형제의 소유재산이 2~3조 원 정도라고 보도되는 근거는 연세대학교 왕현종 교수팀이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우당 육형제 소유의 토지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분들의 재산과 관련하여 한 가지 부연할 내용은, 망명 당시 서울에 있던 토지의 경우 망명계획이 일제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매각하지 못하고 망명했는데,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이를 부재지주라 분류하고 몰수해 대부분 통치목적으로 사용했다.

해방 후에는 우리 정부에서 적산(敵産)으로 분류하여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일제 강점기에 사용했던 단체나 개인에게 매각하여,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법적 책임을 위반한 것이다.

1910년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빼앗기자 우당 선생은 '임진왜란 때 피 흘려 싸운 백사 할아버지를 생각해 일제 치하에서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할 수 없다.'라고 설득하여, 육형제 가족 40여 명이 망명해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무장 독립운동의 기반을 구축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분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육형제를 비롯해 우당의 아들과 조카 네 명, 부인 이은숙 여사와 여동생의 남편 등 모두 열세 명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했다. 단연 독립운동 명문가라 할 수 있다.



우당 육형제가 망명을 결의하는 회의 장면



우당 이회영 선생 (1867~1932)

우당 이회영 선생의 망명 이전 독립운동

우당 선생은 본래 혁신적인 유학 사상을 바탕으로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여 불평등한 봉건적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려는 개혁주의자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반상 계급의 철폐와 적서차별의 시정, 남녀불평등의 개혁 등 자유와 평등사상을 몸소 실천하는 선구자로서 일찍이 노비를 해방하여 만민평등의 자유주의 사상을 지닌 혁명가의 기질이 있었다.

〈을사늑약 반대 운동-신민회 발족〉

1905년 을사늑약의 음모가 진행되자, 우당은 의정부 참찬 이상설과 함께 참정대신 한규설, 외무대신 박제순, 시종 무관 민영환 등과 방문하여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이를 반대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상설, 이상재 등과 협의하여 상동교회 엡워드(Epworth)청년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애국청년들과 함께 경운궁(현, 덕수궁) 정문인 대한문 앞에 모여 을사늑약 반대 연좌시위를 주도하였다. 일제의 압력으로 감리교회 엡워드청년회가 해산되자 1904년 상동교회에 '상동청년학원'을 개원하여 직접 학감을 맡아 전국적으로 애국청년들을 모집하며 신학문과 민족의식을 교육했다.

1906년에 상동교회에서 전덕기 목사, 이동녕, 양기탁 선생 등과 함께 최초의 독립운동 비밀 결사 단체 '신민회(新民會)'를 발족하여 독립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김구 선생과 우당 선생이 독립운동에 관련된 인연을 맺은 것은 이때부터이다.

"김구 선생이 진남포 엡윗청년회 총무 자격으로 상동교회의 엡윗청년 전국연합회에 참여했고, 청년회가 해산되면서 상동청년학원으로 전환되자 지도자로, 후원자로서의 관계를 맺었다. 1906년 독립운동 비밀결사 신민회가 창립되면서 '상동파 독립군'으로 함께 독립운동을 벌였다."

한솔회 편찬(1998),
〈나라사랑〉 제97집 전덕기 특집 231~232p

〈헤이그 특사 실패로 무장투쟁론 정립〉

신민회에서는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할 것을 결의하고 우당의 주선으로 고종의 윤허를 받아, 이상설을 정사, 이준, 이위종을 부사로 임명하여 밀사를 파견했다. 그러나 일제의 집요한 방해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이준 열사가 현지에서 순국함에 따라, 외교 노선을 통한 독립은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무장투쟁노선이불가피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 우당은 1909년 연해주에 망명 중인 이상설을 방문하여 만주에 해외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기로 협의하고 구체적인 망명계획을 추진했다.

무장투쟁의 요람, 신흥무관학교

무장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하여 우당은 경술국치 직전에 이동녕, 장유순, 이관직 선생 등과 함께 두 달 동안 독립운동 기지물색을 위해 서간도 일대를 답사 후 귀국하였다. 그해 8월에 경술국치를 당하고 우당은, 육형제의 결의에 따라 전 가족 40여 명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독립운동 자금 사십만 원(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육백억 원)을 가지고 12월 압록강을 건너 망명했다.

1911년 4월, 길림성 유하현 삼원보 추가가에서 250여 망명자들이 참석한 군중대회를 개최하고 조선족 자치기구인 〈경학사(耕學社)〉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경학사를 기반으로 6월에는 신흥무관학교 전신인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를 설립하여, 신학문과 군사교육을 시작했다. 그러나 현지인들의 냉대와 비협조로 학교운영이 어렵게 되자, 우당은 중국 대총통 위안스카이 [袁世凱]를 찾아가 면담하고, 그의 호의로 통화현 합리하로 〈신흥강습소〉를 이전, 1912년 새로 교사를 지어 무관학교로서의 체제를 정비하여 본격적인 군사교육을 했다.

만주로 이주하는 망명자 수가 늘어 〈경학사〉를 〈부민단〉으로 개편하여 무관학교를 뒷받침하고, 한족 자치기구로의 역할을 강화하며 환인, 신빈, 통화, 유하 등에 이주하는 한족을 위하여 '한인 학교 설립 운동'을 벌여 삼십여 개의 조선족 학교를 세웠다.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의 역할〉

1913년 3월 신흥무관학교 졸업생과 교직원들은, 교장 여준을 중심으로 '신흥 학우단'이란 항일 구국 단체를 조직하고 《신흥학우보》를 발간하여 민족자주정신과 독립운동을 고취 시키는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1914년에는 1~4회 졸업생 등 385명이 통화현 소백차에 백서농장을 건립하여 집단 영농 및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하였다.

3·1운동 이후에는 독립운동 열기가 고조되어 국내의 애국청년들이 만주로 망명하는 일이 빈번해져 무관학교 지원자가 폭주하게 되자, 본교를 고산자로 이전하고 '합리하'와 '추가가'는 분교로 활용하였다.

한편으로는 '부민단'을 해체하고 '한족회'를 발족한 뒤 자치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신흥무관학교'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청산리 전투 후 경신참변과 같은 일제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인해, 1920년 폐교될 때까지 3,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은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 대전자령 전투와 더불어 대다수 독립전쟁을 주도하였다. 1940년 임시정부에서 광복군을 창설할 때도 고위 지휘관들은 모두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었다. 광복군 사령관인 지청천은 군사학 교관 출신이며, 1지대장 김원봉은 졸업생, 2지대장 이범석은 교관 출신, 3지대장 김학규는 졸업생이며, 그 외 중견 간부들도 신흥무관학교 출신이 다수였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고종 망명계획 추진〉

우당은 독립운동 세력의 분열을 막기 위한 구심점을 세워 외국으로부터 독립운동단체임을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독립운동 자금을 수월하게 모금하기 위하여 고종 망명계획을 추진하였다. 대원군의 사위이며 고종의 매부인 조정구 대감과 그의 아들 조남익을 통하여 고종황제와 소통하며 망명 내약을 받았고 고종의 측근인 민영달로부터 오만 원을 전달받아 북경에 고종의 거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제는 고종 망명계획을 탐지하고, 이를 저지하려고 고종을 독살 하자, 전 국민이 분노하여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우당은 고종의 국장을 계기로 대규모 대중봉기와 독립선언을 계획하고 1919년 3월 1일 거사 직전에 해외 독립운동세력의 결집 및 임정 수립을 위한 준비 작업의 하나로 고종 망명계획에 가담한 조정구, 조남익 부자와 함께 북경으로 망명했다. 그곳에서 이시영, 이동녕, 조성환, 조완구 등과 함께 3·1운동 사후의 발전방안을 협의했다. 4월에는 이동녕, 조성환, 이시영과 함께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초대 의정원 의원(29명)으로 피선되어 임시정부수립 기초작업에 동참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이후 자리다툼과 분파작용으로 독립운동 역량이 약화하는 것을 보고 신채호 선생 등과 같이 북경으로 귀환하여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세력을 규합하여 아나키스트운동과 의열 투쟁을 전개하였다.

아나키즘과 의열투쟁

〈아나키즘 운동〉

아나키즘 운동은 일본인이 '무정부주의'로 번역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그 뜻이 부정확하고 아나키즘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아나키즘에서는, 강력한 제국주의 정부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권을 억압하고 대외 침략주의를 지향함으로 이를 거부하고, 민주적이며 분권적인 작은 정부를 세워 자유와 평등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정치사상이라 할 수 있다.

우당은 1922년부터 북경에서 이을규, 이정규, 유자명 등과 함께, 러시아 시인이며 사상가였던 아나키스트 에루생코와 '행동하는 자유주의 운동'을 시작하면서 아나키즘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 운동에는 신채호, 김창숙 등이 참여하여 북경대학교의 노신(魯迅), 대만의 범본양(范本梁)과 연대해 인류의 자유와 평등사상을 추구했고, 1924년에는 이을규, 이정규, 정화암, 백정기 등과 아나키스트운동의 중심이 될 '재중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결성하고 기관지 《정의공보》를 발간하였다. 1928년 우당은 상해에서 한국, 중국, 필리핀, 대만, 일본, 안남(베트남) 등의 아나키스트들이 주최하는 '동방 무정부주의자 대회'에 〈한국의 독립과 무정부주의 운동〉이라는 논문을 보내 이 대회의 결의안으로 채택되었다. 1929년에는 이을규, 정화암, 백정기, 김종진, 엄순봉 등을 북만주로 파견하여 '제만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비밀리에 결성하고 김좌진 장군이 추진했던 '재만 한족 연합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의열투쟁〉

의열단은 김원봉 선생이 1919년에 신흥무관학교에서 창설하여 국내외에서 활동하였고 1924년에는 북경을 중심으로 행동조직으로 강화했다. 우당은 김창숙, 신채호, 유자명 등과 함께 이 조직을 후원했다. 1931년 만주사변으로 인하여 상해로 철수한 동지들을 규합하여 '남화한인연맹'을 결성하고 유자명을 의장으로 선임하는 등 아나키즘 사상을 이념으로 한 의열투쟁에 전념하였다. 1931년 10월 말경에는 정화암, 김성수, 중국인 왕아초(王亞樵), 화균실(華均實), 일본인 전화민(田華民, 일본명佐野), 오수민(吳秀民, 일본명伊藤) 등 7인이 모여 상해에서 '항일 구국연맹'을 결성하고 비밀행동 조직 '흑색공포단'을 조직하여 의열투쟁을 전개했다. '흑색공포단'의 천리방, 백정기, 원심창, 이강훈, 유기문 등은 중국국민당 친일그룹인 왕정위(汪精衛)를 암살시도 하려다가 부관 사살, 아모리[廈門] 일본영사관 폭파사건, 1932년 천진 부두에서 일어난 일본 군수물자를 적재한 일본기선 폭파사건을 비롯하여 천진 일본영사관에도 폭탄을 투척했다. 특히, '항일구국연맹'의 중국인 왕아초는 윤봉길 의사의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의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개석의 중국국민당 첩보기관 남의사(藍衣社) 대표, 재립야사(載笠野史)에 따르면 장개석의 지시로 '4·29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여 그 배후가 왕아초의 소행이라 전했으며, 왕아초는 국민당 대리행정원장 진명추(陳銘樞)의 부탁을 받고 시행한 반침략 전쟁 사건으로 종결지었다. 그는 이회영을 비롯한 조선인 아나키스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각종 정보와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윤봉길 의사 의거는 김구 선생의 '한인애국단'이 배후라고 알려져 있다.

〈이회영의 항일 한중연합 투쟁〉

우당은 1931년 만주사변으로 일제가 만주를 점령하자, 중국의 항일혁명부대와 우리 독립군이 협조하여 한중 연합작전을 추진하도록 지도했다. 공동작전을 추진하던 1932년 요령성 민중자위군(遼寧省民衆自衛軍) 총사령 당취오(唐聚五)와 양세봉(梁世奉)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혁명군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려 잠입하던 중, 사전정보가 누설되어 대련에서 일본 수상경찰서에 체포되었다. 당시 대련에는 독립군부대인 '동북의용군'에서 파견된 김소묵, 김효삼, 양정봉, 문화준 등이 동지들을 영접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이들의 보고에 따르면, 우당은 일경에게 붙잡혀 여순감옥으로 이감되었고 악독한 고문 끝에 1932년 11월 17일에 순국하셨다.

'신민회'에서 독립운동의 방략으로 무장투쟁을 결정한 배경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교적인 방법만으론 독립투쟁이 어렵다는 판단에 있었다. 군국주의를 배경으로 국정 운영을 해온 일제에 대항하려면 언젠가는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과도 전쟁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후에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하는 나라와 연합하여 일제를 쫓아내고 독립을 쟁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당은 그런 논리로 한중합작을 추진했던 것이다.



중국 정부가 우당 선생께 추서한 혁명열사 증명서

우당 육형제가 남긴 교훈과 의의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시기이기에 우당 육형제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치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이들이 남긴 교훈을 생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우당 육형제는 삼한갑족으로 꼽히는 전통 문벌 출신으로, 망국의 끝자락에서 나라를 쇄신하고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일제에 국권을 강탈당하자 자주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육형제 전 가족이 궐기하여 엄청난 재산을 비롯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독립운동 전선에서 목숨을 바쳤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동서역사에서 국가가 망할 때 나라를 떠난 충신열사가 수백, 수천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우당 일가족처럼 육형제, 전 가족 사십여 명이 한 마음으로 결의하고 일제히 나라를 떠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장하다! 우당의 형제는 참으로 그 형에 그 동생이라 할 만하다. 육형제의 절의(節義)는 참으로 백세청풍(百世淸風)이 될 것이니, 우리 동포의 가장 좋은 모범이 되리라."라고 칭송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

월남 선생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당 육형제는, '동서역사에 유래를 볼 수 없는 헌신적인 가족이며 지도자'였다. 국가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전력투구하여, 진정한 지도자의 사명과 책임을 다한 세계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상이다. 또한, 우당 이회영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폐습인 감투싸움과 계파 갈등을 퇴치하기 위해 자신은 일체의 대표직을 사양한 명예를 초월한 자세와, 개인의 공로보다는 동지와 주변을 챙기는 화합과 통합을 지향하는 지도자였다.

월남 선생은 우당을 '이면 지도자'라고 불렀다. 우당의 백의종군 정신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시대의 정신이며 국민적인 교훈이라 하겠다. 성재 이시영도 임시정부의 법무 총감과 재무총감으로, 다른 사람이 맡기 어려운 직책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임시정부를 사수했다. 국무령으로 추대되었지만, 자신의 명예보다는 대의를 위하여 양보했고 연부역강한 김구 선생을 추대하여 석오 이동녕 선생과 함께 임시정부를 지켰던,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은 국민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민국의 길, 자유의 길〉

우당 육형제들이 지키려고 했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이회영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다. 자유와 평등권을 억압하는 전제 정부나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정부를 배격하고 자유연합적인 작은 정부를 구상했다. 이회영, 이시영 형제는 상해 임시정부에 의정원 의원으로 참여하여 임금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인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하고 국민이 주인인 공화정을 세우는 데 기여했다. 이시영은 정부수립 후, 초대 부통령으로 생애의 마지막 과업인 '참된 민주정치'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했으나, 정치적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퇴임사를 남기고 홀연히 사임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우당 육형제의 독립운동을 회고하면서 이 시대에 진정한 애국의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구, 건국 과정에 필요한 인재 양성소 설립의 꿈을 이루다

백범과 건국실천원양성소

백범은 청년만이 희망이고 조국의 미래라고 믿었다. 백범 스스로는 일찍이 교육을 받지 못해 망국민이 됐지만, 젊은이들만은 훗날 건국의 영웅으로 키우려고 무진 애를 쓰며 가르쳤다. 환국 이후 세운 이 교육 기관에 백범의 그런 꿈과 소망이 담겨 있다.

글_ **김형목**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위원

과도정부 수립에 의한 자주적인 민족국가 건설을 갈망하다

백범 김구는 한국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추앙받고 있다. 그는 20세기 초반부터 황해도를 중심으로 민족교육을 통한 구국운동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안악군과 재령군 등지가 대한제국기를 대표하는 근대교육 운동의 '메카'로서 자리매김 하게 된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맞물려 있었다. 이와 같은 활동과 소중한 경험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 시절에도 교육운동을 계승·발전시키는 밑거름이었다.

1932년 이봉창 의거와 윤봉길 의거 이후 고난의 이동시기에도 인성학교와 삼일유치원을 운영하는 등 문화국가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충칭에서 해방을 맞은 백범 등은 임시정부 중심으로 국가건설을 주장하며 차분하게 환국 준비에 돌입했다. 1945년 9월 3일에 임시정부는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과 14개조 당면정책을 통하여 정부수립 3단계 안을 내걸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임시정부가 정권을 접수하고, 과도정부를 수립한 후, 보통선거를 통하여 정식 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이었다. 김구는 '대한민국건국강령'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의 지향점인 자주적인 민족국가 건설에 매진하였다. 건국강령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한 발전을 통하여 복국, 건국, 치국 나아가 구세(救世)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삼균주의에 바탕을 두었다.

한편 환국 과정에서 국내외 정세는 백범이나 임시정부세력이 구상한 건국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미군정, 이승만 계열, 사회주의 계열 등은 임시정부의 정부로서 활동을 견제했다. 미군정은 정부 자격으로 입국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먼저 귀국한 이승만은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하여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구축하였다. 여운형이나 박헌영 등 사회주의 계열도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임시정부를 견제하고 나섰다.

백범은 강대국에 의한 신탁통치를 반대하면서 임시정부가 중심이 된 독립국가 수립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갈망했다. 과도정부 수립을 통한 건국구상은 당시 정세를 고려한 '야심찬' 계획이었다. 이듬해 반탁운동 전개와 함께 주권을 장악한다고 명시한 〈국자(國字〉 1-2호 선포에 대하여 미군정은 이를 쿠데타로 규정하였다. 살얼음판과 같은 난관에 직면하는 상황을 맞았다. 새로운 돌파구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비상정치회의라는 대의체를 결성하여 과도정부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하지 중장은 비상정치회의 내 최고정무위원회를 미군정의 자문기구인 민주의원으로 변질시켰다. 이에 임시정부는 정권 접수는 물론 대의체에 의한 과도정부 수립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더욱이 임시정부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독립당(이하 한독당)은 우익정파로서 위상이 크게 위축·축소되고 말았다.

건국구상을 실천하는 방안은 다른 방법으로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범은 직접 민족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여 건국구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백범의 건국구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건국실천원양성소(이하 양성소)이다. 이는 1947년 3월 김구 주도로 건국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1949년 해체될 때까지 모두 9기에 800여 명이나 입소하여 교육을 받았다. 사실상 백범을 절대 지지하는 '인재풀'과 같은 교육기관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념적인 극단적 갈등과 정치·사회적인 불안정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말았다.

새 시대에 부응한 인재 양성을 도모하다

양성소는 백범의 민족교육에 의한 건국사업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다음 기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금 조선이 오직 바라고 원하는 것이 건국실천자라면 이들을 양성하고 추진 지도하는 건국실천원 양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독립전취 완수의 현실에 봉착하여 남조선에서는 과거 40년 간 해외에서 조선독립을 위하여 혈전고투한 우리의 지도자 김구를 준비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진승록·안호상·황기성·손홍린·김석길 5씨를 위원으로 한 건국실천원양성소기성회를 조직하고 동소 설립 준비에 착수하였는데, 이번 획기적 사업에 있어서 특히 김구는 노구를 무릅쓰고 독립전선에 초석이 될 전위간부의 양성을 맹세하고 동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에 취임된 것이다."

양성소 설립을 위한 기성회는 1946년 12월에 조직되었다. 백범은 준비위원장에 취임하여 개소를 진두지휘할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비록 기성회 준비위원으로 거론되지 않았으나 한독당 선전부장 엄항섭은 실질적인 주역 중 한 사람이었다. 준비위원 경력이나 활동 등은 양성소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성회 준비위원 5명 중 4명은 학계와 언론계에 종사한 인사들이었다. 안호상과 진승옥은 미군정기 교육정책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안호상은 경남 의령 출신으로 부산 기미육영회 장학생에 선발되어 독일에서 철학을 전공한 철학자이자 교육가였다. 그는 일민주의를 내세워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등 미군정의 친미적 교육정책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중앙훈련소 강사로서 활동은 한민족 주체성을 강조하려는 그의 신념이나 교육철학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진승록은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법학교육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인물이었다. 그는 고려대학교에 재직하면서 미군정 문교부의 문교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황기성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결성 당시 부인부장, 독립촉성애국부인회에서는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한독당 부녀부장, 여성신문 사장을 역임한 여성계를 대표하



건국실천원양성소 8기 입소생들과 함께(1949년 6월 5일). 앞줄 왼쪽에서 8번째가 백범

는 인사였다. 김석길은 황기성을 통하여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는 동아일보 봉천지국과 만몽일보 기자로서 활동한 언론이었다. 우리말과 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조선어사전』 편찬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해방 직후에는 주요 언론사 주필과 주간 등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 영향력이 대단하였다.

손홍린은 활동상이 크게 드러나지 않으나 상당한 재력가였다. 양성소의 운영비 등 재정문제는 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기성회는 양성소의 구체적인 운영 목표와 방안 등을 제시했다. 목표는 "독립의 투사로 유기적으로 조직하고, 과학적인 이론으로 무장한다."였다. 김석길이 저술한 『한국민족의 당면진로』 서문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이론의 몰비판적 수입으로 인해 건국의지가 혼선을 겪고 결국 민족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게 됨을 경계하고, 건국의지 실현을 위해 철저한 이론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자주적인 주체성 확립과 대동단결은 궁극적인 지향점이나 마찬가지였다. 서구 사조에 함몰되어 부화뇌동하는 몰주체적이고 민족 분열적인 행위에 대한 비판이었다.

양성소는 준비과정을 거쳐 기성회가 결성된 지 약 3개월 후인 1947년 2월 말부터 입소자 모집을 시작했다. 개소식은 예정보다 5일 늦은 3월 20일 오전 11시 용산에 있는 원효사에서 이루어졌다. 원효사는 해방 이전 일본인 소유 사찰이었으나 김법린이 적산으로 인수하여 제공하였다. 행사에는 입소생과 관련 인사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사회는 황기성이 맡았으며, 김구는 소장으로 정감어린 어조로 훈화하면서 이들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입소생들은 이에 화답하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건국강령에 충실한 체제로 운영되다

초기 양성소는 소장과 상무이사 체제로 운영되었다. 소장은 백범, 상무이사는 5인 준비위원과 새로 합류한 강낙원 등이었다. 강낙원은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일본 유학 후 휘문고등학교와 연희전문 교수로 체육계에 유명한 인사였다. 3·1운동 이후 상하이로 가서 임시정부를 방문하였으나 독립운동과 군자금 모집에 회의를 느끼고 귀국했다. 그는 입소생들의 훈육을 담당하였다. 소장과 상무이사 체제로 시작된 양성소는 1948년 12월 더욱 확대되었다.

명예소장 : 이승만
소장 : 김구
부소장 : 엄항섭
이사장 : 장형
이사 : 김법린, 김석길, 손홍린, 김정실, 김학규, 설의식, 엄상섭, 엄항섭
감사 : 김현묵, 최진후
직원 : 임종모, 김현묵, 엄원희, 최진후, 김일경

특이한 점은 명예소장직과 이사장직 신설, 이사진의 변화 등이다. 명예소장에 이승만을 추대한 사실은 사회적인 명망을 활용하여 유능한 입소생을 모집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장형은 단국대학을 설립하는 등 민족교육을 실천하는 한편 백범을 열렬하게 지원하는 육영사업가였다. 이사진은 준비위원에서 임시정부 계열과 언론계·학계·종교계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었다. 임시정부 계열이자 백범의 최측근 엄항섭과 김학규 참여는 눈여겨 볼만한 대목 중 하나이다.

한편 모집인원은 기수마다 100명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다. 제2기생 모집기사를 통하여 입소자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독립운동의 제일선지도자를 단기양성코저 김구씨가 과반 설립한 건국실천원양성소에서는 금번 제2기생을 모집 중이라는 바 응모자격은 20세 이상 45세 미만의 남녀로서 중등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에 한정되며 지원자는 이력서와 애국단체 추천서 각 1통을 첨부하여 서울시 충무로 2가 109번지 건설중앙사무소로 송부하며 합격자는 10월 20일에 발표키로 되었다. 그리고 동양성소에서는 오는 11월 1일부터 개소키로 되었으며 훈련기간은 1개월, 합숙비용은 3천원 중 반액은 동소에서 부담한다고 한다."

입소생 자격은 20세 이상 45세 미만인 대한민국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남녀였다. 관련 서류는 이력서 이외에 애국단체추천서 등이었다. 이로 보아 정치·청년·학생단체에 가입하여 추천을 받거나 명망가들의 추천으로 입소생은 선발되었다.

입소생들도 기수별로 많은 변화를 보인다. 제1기생은 독촉과 조선민주당 등 정치단체에 소속된 경우가 두드러졌다. 당시 우남과 백범은 정치적인 연대를 공유하고 있었기에 독촉에 소속된 청년들의 입소가 많았다. 조선민주당 출신은 백범의 건국구상에 동참한 경우로 생각된다. 대한광복청년회와 서북청년회 출신도 일부 보인다.

제5기생은 청년단체 중 대동청년단 출신이 많았다. 대동청년단은 족청과 비교될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런데 대동청년단은 5·10총선거에 참여하면서 정치단체로 변모하였다. 이에 반발한 입소생들은 백범의 노선을 지지하는 변화를 보였다. 한독당 소속의 입소생도 일부 있었다. 이들은 한독당 내 인재 발굴, 양성과 무관하지 않았다.

제8기생은 대한청년단 소속이 다수였고, 민보단 출신도 일부 보인다. 전자는 각 청년단체 연합이었기에 이승만 노선에 반발한 세력으로 짐작된다.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입소생들은 임시정부나 명망 있는 인사들의 개인적인 추천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학생이나 교사 등

1947년 5월 제1기 수료 후 10월까지 교육은 실시되지 못했다.
이는 임시정부 봉대 계획 실패와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이후 정치 지형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1948년 4월 제4기생을 배출한 이후 7개월간 교육이 중단되었다.
원인은 백범의 남북협상과 한독당의 5·10총선거 불참,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등이었다.

은 자신이 소속된 교육기관장 추천으로 입소하였다.

민족사적 과제를 올바로 제시하다

양성소는 백범의 건국구상을 지지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임시 교육기관이었다. 이와 더불어 '과학적 이론의 무장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전문적인 인재들도 필요했다. 이에 부응하고자 강사진은 외부에서 유명 인사들을 초빙하였다. 교육 내용은 당시 다른 청년단체의 훈련과정과 유사했다.

강사진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활동하거나 정치·경제·언론·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개소 이전엔 진승록·안호상·김석길, 언론계 설의식, 정치계 장덕수 등이었다. 주요 대학 교수 등도 초빙 대상이었다. 황의돈·이선근·손진태 등은 역사교육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데 앞장섰다. 이들은 청년단체에서의 경험을 살려 '독립투쟁의 유기적인 조직'을 위한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였다.

제5기는 임원진과 마찬가지로 임시정부와 친백범계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엄항섭·조완구·김학규·나재하 등은 임시정부 요인이자 한독당 주요 임원들이었다. 이들은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과 노력 등을 소개하는 동시에 '건국강령' 속의 자주적인 민족국가, 민주주의 국가, 통일국가 수립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장형·장도빈·김정실·정낙진 등 단국대학을 설립한 인물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이는 장형이 이사장으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8기 강사진은 제5기에 비하여 많이 교체되었다. 반민특위위원장 김상덕과 김약수·서용길·노일환·박윤원 등 정치인 참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백범은 이들의 민족통일과 친일파 청산이라는 두 과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소장파 의원들은 이를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했다. 김상덕은 친일파의 죄상을 알리는 한편 친일파 청산이 시대적인 소명임을 널리 주지시켰다. 서용길과 박윤원 등도 반민특위 검찰관이나 조사관으로 참여한 경험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

교육기간은 1개월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개소일과 수료일은 일정하지 않았으며 교육기간도 그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은 복잡다단한 당시 정치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특히 1947년 5월 제1기 수료 후 10월까지 교육은 실시되지 못했다. 이는 임시정부 봉대 계획 실패와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이후 정치 지형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1948년 4월 제4기생을 배출한 이후 7개월간 교육이 중단되었다. 원인은 백범의 남북협상과 한독당의 5·10 총선거 불참,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이었다.

정치·경제·법률·시사·역사·선전 등은 주요한 교과목을 차지했다. 백범의 건국구상을 실현하는 데 정치와 경제는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 역사와 독립운동사도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데 필수적인 교과목이었다. 선전은 건국구상의 실천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었다. 제식훈련 등 군사교육도 중시되었는데, 강낙원과 신태영 주도로 진행되었다. 특이한 사실은 제5기생부터 '공산주의비판'이 추가되었다. 이는 민주주의 해설과 더불어 현실적인 문제에 더욱 관심을 고취시키려는 의도였다. 즉 우리 민족이 당면한 과제는 계급투쟁이 아니라 민족단결임을 거듭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8기생은 5기생에 비해 교과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특강이 교과목으로 신설된 점이다. 강사진은 김상덕·김약수·노일환 등 소장파 제헌국회 의원과 신정언·이은상 등 문학가 등이었다. 국회의원들은 남북협상을 지지하고 반민특위를 통하여 친일파를 제거하자는 백범과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친일파 청산과 통일정부 수립을 진정한 민족독립이라고 보았다.

백범의 서거로 원대한 계획이 무산되다

남북협상 이후 백범에 대한 암살설이 나돌았으나 별다른 반응이나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1949년 6월 25일 백범은 공주 양성소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공주경찰서는 개소식 행사를 불허했다. 88구락부는 이날 새벽 수원 병점고개에서 백범을 암살할 계획이었으나 행사가 취소된 다음날 안두희는 암살을 실행에 옮겼다. 정부는 이를 한독당 내부 분열에 의한 사건으로 호도했다.

이와 더불어 양성소에 대한 탄압도 가중되었다. 서거 이후 회원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조사는 물론 미행과 검문 등이 수반되었다. 양성소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료생들은 '요시찰인'이 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일이 다반사였다. 김학규와 엄항섭 등은 "엄청난 재정난과 제반적인 문제"로 8월 23일 양성소 해체를 결의했다. 이리하여 개소한 지 2년 5개월 만에 양성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해체를 결의한 양성소는 9월 25일자로 홍익대학에 흡수되었다. 당시 임원진은 명예소장 이승만, 소장 정열모, 상무이사 정일, 감사 김현묵, 직원 박교남·김학현·김명룡·장태수 등이었다. 새로운 소장과 상무이사는 정열모와 정일이었다. 정열모는 한글학자로 초대 홍익대학장을, 정일은 홍익대학 상무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이들은 대종교의 주요 인사들이었다. 이때 마지막으로 제9기생을 모집하여 교육하였을 뿐이다. 교과목도 대학교육 체제에 맞는 경제학개론·국문학개론·미술사·수양강의 등이 추가되었다.

이처럼 양성소는 해방 이후 백범의 국내 활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설립에서 해체까지 백범과 행보를 같이 한 교육기관으로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는 그의 건국구상이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끈 위대한 영웅들

국가보훈처에서는 1992년부터 매년 12명 이상의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이는 독립투사들의 활동과 업적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이들의 공훈을 선양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겨레의 스승인 백범 김구는 지난 1995년 8월 선정된 데 이어
올해 8월 다시 한 번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될 예정이다.
올해 1~3월에 선정된 '이달의 독립운동가'들을 살펴봤다.
(자료_국가보훈처 제공)









1월의 독립운동가

유관순(柳寬順, 1902. 12. 16. ~ 1920. 09. 28.)

"난 잔 다르크처럼 나라를 구하는 소녀가 될 테다. 누구나 노력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이팅게일처럼 천사와 같은 마음씨도 가져야지"

유관순은 1902년 충남 목천군(현재 천안시)에서 아버지 유중권(柳重權)과 어머니 이소제(李少梯) 사이의 5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공주에 왔던 감리교 순회 선교사의 주선으로 서울의 이화학당으로 편입했다. 당시 이화학당 교비생으로 추천받아 공부하게 됐으며, 1918년 4월 이화학당의 고등과 1학년에 진학했다. 유관순의 투철한 조국애와 민족애는 곧 이어 전개된 3·1운동으로 꽃피게 된다.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는 수 천 명의 학생과 시민이 모여 있다가 2시 30분경 독자적인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곧 시가지로 물밀듯 밀려나가 만세시위를 전개함으로써 3·1운동의 불꽃을 피워 올렸다. 이날 서울의 만세시위는 날이 저물도록 시내 도처에서 전개됐다.

유관순은 3·1운동이 발발하기 직전, 학교 학생들과 시위 결사대를 조직, 만세시위에 참가하기로 굳게 맹세했다.

드디어 3월 1일, 그녀는 마치 잔 다르크처럼 구국의 화신으로 일제하 최대의 항일 민족독립운동이자, 민족혁명운동인 3·1운동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3월 5일 그녀는 시위 결사대 동지들과 함께 서울에서 전개된 최대의 시위운동인 남대문역(서울역) 만세 시위운동에도 참여했다. 이후 3월 13일 사촌 언니인 유예도와 함께 독립선언서를 몰래 숨겨 가지고 귀향해 본격적으로 고향에서의 만세 시위운동을 추진해 갔다.

우선 유관순은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서울의 3·1운동 소식을 전하고 "삼천리 강산이 들끓고 있는데 우리 동네만 잠잠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만세 시위운동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그리고 4월 1일 병천면 아우내 장날, 유관순은 장터 어귀에서 밤새 만든 태극기를 나누어 주면서 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러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날 3천여 장꾼이 거리를 뒤덮었다. 시위 대열이 아우내 장터 곳곳을 누비자 병천 헌병주재소의 헌병들이 달려와 총검을 휘두르며 만세 시위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이 때 그녀의 아버지 유중권은 일제에 항의하다가 일본 헌병의 총검에 찔려 순국했으며, 유관순의 모친도 일본 헌병들에게 학살당하고 말았다. 이에 유관순은 숙부인 유중무 등과 함께 군중을 이끌며 항의 시위를 계속했다.

일본 헌병들은 재차 무차별 총격을 가해 시위 군중을 해산시킨 뒤, 유관순 등 시위 주동자들을 체포해 천안헌병대로 압송했다. 이후 공주감옥으로 이송될 때에는 군중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지날 때마다 독립만세를 연이어 고창해 불굴의 독립의지를 표출하기도 했다.

유관순은 6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받았던 아우내장터의 만세시위 주도자들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같은 해 9월 11일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후에도 유관순은 서대문 감옥에서의 온갖 탄압과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옥중 만세를 불렀다. 특히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을 맞이해서는 수감 중인 동지들과 함께 대대적인 옥중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유관순은 지하 감방에 감금돼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고문을 당하게 됐다. 유관순은 고문으로 인해 방광이 터지는 중상을 입었으나 치료하지 못한 채 고문의 후유증과 영양실조로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경, 서대문감옥에서 18살의 꽃다운 나이로 순국하고 말았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에서 2019년 3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승격 추서되었다.



2월의 독립운동가
김마리아(金瑪利亞, 1892. 06. 18. ~ 1944. 03. 13.)

김마리아는 1892년 6월 18일 황해도에서 아버지 김윤방(金允邦)과 어머니 김몽은(金蒙恩) 사이의 세자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마리아는 개신교의 세례명으로 독실한 신자였던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다. 김마리아의 집안은 만석꾼 김참판댁으로 불려졌다. 김마리아는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개화 지식인이자 애국지사였던 부친과 삼촌, 그리고 고모들 사이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가 되어 갔다.

1910년 8월 조국은 일제의 완전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마리아는 교육 계몽을 통한 국권회복의 꿈을 접지 않았다. 김마리아는 알찬 후진 교육을 위해 1912년 가을 1년간 히로시마 고등여학교에 유학했다. 1917년 10월 그녀는 일본 전체 여자유학생회의 대표로 선출된 후 기관지《여자계(女子界)》를 발행, 민족의식 고취에 앞장섰다. 1918년 1월 8일 전후처리 지침으로 미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발표되었고, 재일 동경 유학생들은 이를 한국 독립의 절호의 기회로 이용하고자 독립선언을 준비했다. 이것이 바로 동경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 계획이었는데, 여기에 김마리아를 비롯한 여자 유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금을 거둬 2·8독립선언 준비 자금에 보탰고, 2월 8일 당일에는 동경 간다[神田]의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독립선언대회에도 참석했다.

김마리아는 2·8독립선언문 10여 장을 미농지에 복사해 옷 속에 감추고는 2월 17일 동경을 출발해 현해탄을 건너 부산에 도착했다. 대구로 가서 기독교계 동지들을 찾아 자신이 가지고 온 2·8독립선언서를 보이고 거족적 독립운동을 촉구했다. 3·1운동 당시 그녀는 그 배후 지도자로 지목돼 일경에 체포됐다. 혹독한 고문과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8월 4일 증거 불충분으로 예심 면소(免訴) 결정이 돼 석방될 수 있었다. 출감 후 김마리아는 정신여학교 동창과 교사들이 중심이 된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의 조직과 활동 상황을 알게 됐다.

김마리아와 정신여학교의 동창들은 3·1운동으로 투옥된 남녀 애국지사의 옥바라지와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해 혈성부인회(血誠婦人會)를 만들어 활동했다. 그리고 기독교 계통의 여성들은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를 결성해 임시정부 후원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이 시기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활동은 매우 침체돼 있었다. 때문에 김마리아는 이 단체를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으로 확대하는 한편, 독립운동 단체임을 명백히 했다. 그리고 국권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략으로 비밀리에 독립운동 자금 수합 활동을 벌여 그 해 11월까지 6,000원의 군자금을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실적을 올렸다. 그러던 중 조직원의 배신으로 11월 28일 그녀를 비롯한 임원진 등 52명이 일경에 체포돼 대구의 경상북도 경찰국으로 압송됐다. 그리하여 김마리아는 대구지방법원과 복심법원에서 황애덕과 함께 3년형을 받았다.

그 사이 김마리아는 일제의 고문과 악형을 당해 병보석으로 1920년 5월 22일 출감한 뒤,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서 중국 망명을 계획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황해도 대의원으로 선출돼 활약했다. 이후 그녀는 미국에 유학한 뒤에도 유학 중인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여성 독립운동 단체인 근화회(槿花會)를 조직하고, 조국 광복의 대업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1932년 7월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한 김마리아는 종교 모임과 강론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김마리아는 고문 후유증이 재발함에 따라 평양기독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1944년 3월 13일 순국했다.

정부에서는 김마리아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3월의 독립운동가
손병희(孫秉熙, 1861. 04. 08. ~ 1922. 05. 19.)

3·1운동을 주도한 선각자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오. 그러나 겨레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겠소."

손병희는 1861년 4월 8일 충북 청원(지금의 청주)에서 태어났다. 1882년 동학에 입문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호서지방 중심의 북접(北接)의 통령(統領)에 임명됐다. 남접의 전봉준(全琫準)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했다.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군은 관군을 연파하고 충남 논산에서 전봉준의 남접군과 합세했지만 일본군의 불법개입으로 인해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패전했다. 손병희는 강원도 태백산맥 등지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1897년 최시형의 뒤를 이어 동학의 제3대 교주로 취임했다. 교세확장에 힘을 기울이던 그는 1901년에는 세계정세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에서의 경험은 기존의 항일적 무력항쟁의 노선에서 일본을 통한 문명개화운동의 노선으로 방략을 변경하는 계기가 됐다.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의 승리를 예견했다. 이를 이용, 부국강병의 대책을 세워 국가만전(國家萬全)을 기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용구가 진보회를 일진회(一進會)로 바꾸고 일제의 앞잡이가 돼 매국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자, 1905년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고 친일화된 일진회와의 단절을 추진했다. 이후 적극적인 포교 활동으로 교세를 신장시켰다.



손병희 유묵 '정영'

그는 주권 회복을 위한 민족 계몽 운동에 관심을 기울였다. 보성사(普成社)라는 출판사를 세우고《천도교회월보(天道敎會月報)》를 발행해 교인을 계몽시키는 한편《만세보》와 각종 서적을 발간해 일반인의 계몽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보성학교(현 보성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와 동덕여학교(현 동덕여자고등학교와 동덕여자대학교)를 비롯한 문창·보창·명신·양영 등 수십 개의 남녀학교를 인수 또는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민족의 동량을 육성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사범강습소와 수백 개의 교리강습소를 설립해 운영함으로써 천도교의 인재를 양성했다.

손병희는 조선의 독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독립을 위해 권동진, 오세창, 최린과 3·1독립운동의 골간이 된 대중화(大衆化)·일원화(一元化)·비폭력화(非暴力化)의 3대원칙에 합의하고 각 교계의 중심인사들을 규합해 갔다.

거사일인 3월 1일, 그는 태화관에 모인 28인과 함께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다. 그리고 선언식을 마친 후 일경에 연락해 자진 체포됐다. 그러나 손병희와 다른 민족대표가 점화한 3·1운동은 이후 불길처럼 국내 전역으로 확산됐고 중국·러시아·미국 등 한국인이 살고 있는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3·1운동의 영향은 국내외 각지에서 8개에 달하는 임시정부의 출현과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로의 통합을 통해 그 결실을 맺게 됐다. 3·1운동 직후의 '전단정부'인 대한민간정부(기호지방)와 노령정부에서 그를 대통령에 선임했으나, 손병희는 정치인보다 종교인으로서 사회를 교화하는 일에 힘썼다.

손병희는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2년간 옥고를 치르다가 뇌출혈로 가출옥했으나 1922년 5월 19일 생을 마감했다. 당시 그의 나이 62세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백범의 얼

108 **뜻을 잇다 I**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백범 김구의 생애와 사상
글 **이경희** · 사진 **장병국**

113 **뜻을 잇다 II**
다시 생각해 보는 백범 김구 선생
글 **이경희** · 사진 **장병국**

118 **뜻을 잇다 III**
11회 백범문화강좌 '근대 초 해양 패권의 변화
글 **유연경** · 사진 **장병국**

123 **2019년 『백범일지』 독서감상문쓰기대회 안내**

124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 기념관 및 김구재단 주요 소식**

130 **이 한 장의 사진**
일제의 흉탄에도 의연했던 겨레의 큰 스승 백범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백범 김구의 생애와 사상

김형오 전 국회의장·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

2018년 12월 18일, 『백범 묻다, 김구 답하다』의 저자이자 전 국회의장인 김형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이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띤 강연을 펼쳤다. 20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백범 김구의 정신을 다시금 새기고 이어받고자 마련된 이 자리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중이 모여 시종일관 뜨거운 열기를 자아냈다.

글_ 이경희 기자 · 사진_ 장병국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오늘 특강은 그간의 특강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보통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로비는 물론 대회의실에도 북적북적 빈자리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 강의 시작 시간이 임박하자 급기야 의자들이 급히 공수되어 추가로 자리를 만들기까지 했으니 말 그대로 유례없이 뜨거웠던 특강이었다.

찾아온 인사들의 면면도 화려했다. 이종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위원장,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 원장, 김창엽 전 아일랜드 대사, 박정자 연극배우, 윤동환 한국콜마 회장 등 각계각층에서 내로라하는 인물들이 김형오 회장의 강의를 듣기 위해 백범김구기념관을 찾은 것이다.

국민의례를 마치고 단상에 선 김형오 회장은 "250석을 준비했는데 자리가 부족해서 예비석을 깔았습니다. 바쁜 연말, 쌀쌀한 날씨 속에서 여기까지 찾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한 뒤 오신 분들을 일일이 소개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스스로를 위해서 모두 박수를 보내자"는 말로 힘찬 강의의 시작을 알렸다.

김형오 회장은 먼저 "저는 오늘 백범 김구 선생과 어려웠던 시기에 뜻을 함께 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몇 분 소개하며 그 분들에 대해 다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리고 연이어 청중에게 질문을 던졌다. "2019년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해인데 혹시 무슨 해인지 아시는지요?"

여기저기서 이야기 소리가 흘러나온다. "3·1절?", "임시정부 수립…?" 귀를 기울이던 김형오 회장의 얼굴이 대번에 밝아진다.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2019년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토록 중요한 2019년을 눈앞에 두고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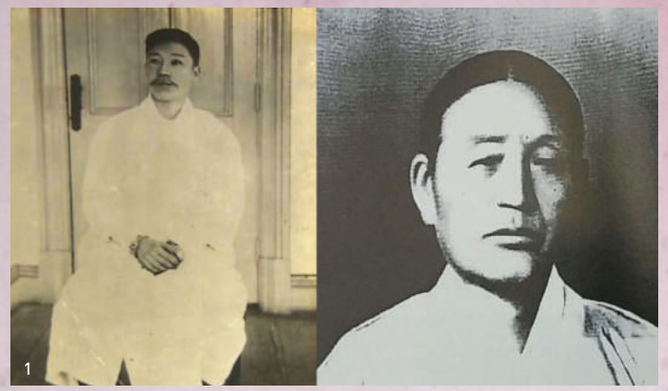
지혜와 용기 그리고 애국심을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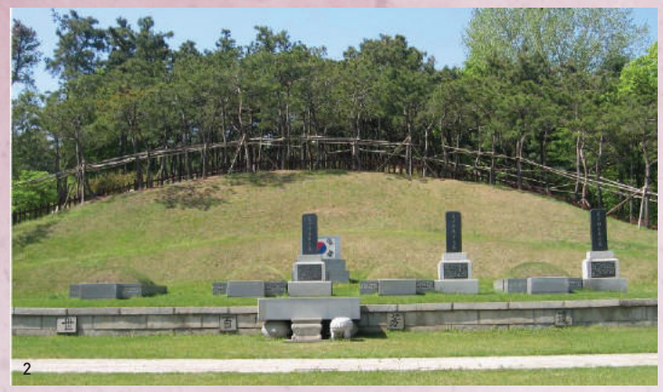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 세운 나라인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나라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좌절감을 많이 느끼는 시기지요. 이런 때야말로 우리는 김구 선생 같은 용기를 갖고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백범일지』를 갖고 쓴 제 책의 1/10도 안되겠지만 말입니다."

김형오 회장은 청중에게 김구 선생의 지.혜.와 용.기, 애.국.심, 이 세 가지를 기억해달라고 한 자 한 자 힘주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용기, 애국심은 김구 선생의 정직성과 솔직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범일지』에서 김구 선생은 자라면서 자신의 집안은 진주 강씨, 덕수 이씨 집안 사람들에게 안동 김씨로서 핍박과 천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김구 선생에게는 아마도 상놈 콤플렉스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독립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자유와 민주, 평화와 평등이 함축되어 있었고 그걸 꿈꾸고 희망했기 때문에 피를 흘리며 싸웠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평등은 양반계급에 한이 맺혀서 나온 게 아니었을까요?

전 김구 선생의 위대한 점, 지혜로운 점 하나가 자신이 가진 상놈 콤플렉스를 훌륭하게 극복해나갔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구의 시계 윤봉길의 시계



1. **수의를 입은 안중근 의사와 어머니 조마리아** 어머니가 지어 보낸 수의를 입고 있는 안중근 의사와 강한 기개와 의지로 아들을 지켜본 조마리아 여사. 조마리아 여사는 수의와 함께 보낸 자신의 편지에서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마음 먹지 말고 죽어라"라고 말해 죽음을 앞둔 아들 앞에서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2. **3의사 묘역** 효창공원에는 3의사의 묘가 있다. 백정기,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묘가 바로 그것이다. 비어 있는 봉분은 돌아오지 못한 안중근 의사의 묘이다. 김구 선생은 해방이 되자 독립열사들의 유해를 찾아 조국으로 모셔올 것을 명했고 윤봉길 의사는 각고의 노력 끝에 당시 암매장 됐던 묘지에서 그 시신을 찾아 인도할 수 있었다.
3. **다시 만난 백범의 시계와 윤봉길의 시계** 거사를 앞두고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가 태극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애국열사들의 상황을 말해주는 듯 두 사람 모두 눈빛만 형형하게 살아있을 뿐, 마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의 동지애와 결연한 의지가 녹아 있는 두 개의 시계는 현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시 중이다.
4. **"철혈남아" 휘호** 백범은 이봉창, 윤봉길 등 실천 운동가를 기리며 "철혈남아"라는 휘호를 즐겨 썼다. 여기서 '철혈'은 장광설이나 이론이 아닌 몸을 던져 수행하는 실천적 행위를 말한다.
5.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적은 『백범일지』**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는 보물 제1245호로 지정되어 있다. 총 두 권으로 되어 있으며 국민들의 필독서로 자리 잡았다. 한자가 많고 낡아서 해진 부분, 지명이나 인명의 오류도 눈에 띄지만 김구 선생은 스스로의 치부를 서슴지 않고 공개함으로써 회고록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백범일지』는 다양한 형태로 계속 출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꼽힌다.
6. **오사야항 청사**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의 하권을 집필했던 장소이다. 당시 김구 선생은 영양실조에 걸려 쇠약해진 상태에서 써 퇴고나 손질할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세 번째 청사인 이 목조 가옥은 2012년 일대가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재개발 후 복원될 예정이다.









김구 선생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과거에 떨어지고 아버지의 명에 따라 관상쟁이나 되어 볼까 싶어 공부한 관상학 책에 의하면 자신의 관상은 천격, 빈격, 흉격뿐이었으니 말이다. 갈등과 번민에 빠진 김구 선생은 여기서도 다시 한 번 절망을 딛고 일어난다. 관상 좋은 사람보다, 마음 좋은 사람이 되자! 라고 결심한 것이다.

"김구 선생은 '어떻게' 하면 마음 좋은 사람이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17살 젊은이가 어떻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것입니다. 저는 '왜'라는 의문을 갖지 않는 사람은 4차 산업 시대에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7살 김구 선생이 가진 그 안목과 지혜로움에 저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구 선생 그리고 애국선열들

김형오 회장의 강의는 김구 선생의 삶에서 큰 획을 그었던 인물들과의 인연으로 이어져갔다.

안중근 의사와 김구 선생의 인연은 안 의사의 아버지이자 동학 토벌군이었던 안태훈 진사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안태훈 진사는 토벌해야 할 대상이었던 동학군 김구 선생을 두고 "눈빛이 찌를 듯 빛나 사람을 압도하는 기운이 있다"고 평하며 가까이 했고, 그의 아들인 안중근 의사는 순국하기 직전까지 김구 선생처럼 험난한 독립의 여정을 걸었기 때문이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코레아 후라!(러시아 말,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는데 그가 이토를 죽인 이유 15가지를 보면 '한국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가

그 첫째로 이는 김구 선생이 명성황후의 복수를 위해 나섬으로써 조선의 분노와 조선이 살아있음을 알리고 사형선고를 받았던 일과도 일맥상통한 것이었다.

김구 선생은 안중근 의사의 신념과 애국심을 새기며 안 의사의 순국 39주년에 '백산흑수(白山黑水)'라는 휘호를 바침으로써 그의 넋을 기렸다.

강의 도중 아주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기도 했다. 바로 안중근 의사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를 연극배우 박정자 씨가 직접 낭독해준 것이었다. 실제로 연극에서 조마리아 역할을 맡기도 한 박정자 씨는 죽음을 앞둔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치 실제인 양 깊고 진중하게 읽어 큰 박수를 받았다.

김구 선생과 이봉창 의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이봉창 의사는 일본인 행색을 하고 다닌 자신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거사를 맡긴 김구 선생을 존경하고 그 뜻을 따른 인물이다. 비록 그의 일왕 저격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 일로 인해 한·중 간의 분열과 이간책이 해소되었고 의거소식이 알려지면서 해외교민들로부터 독립운동에 써달라는 성금이 눈송이처럼 답지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거사 직전에 시계를 맞바꾼 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의 이야기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백범 묻다, 김구 답하다』를 쓰면서 솟아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썼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었어요."

때마침 벽시계가 일곱 시를 알리는 종을 쳤다. 윤봉길은 자기 시계를 꺼내더니 내 시계와 바꾸자고 했다..... 나는 목이 메어 마지막 작별인사를 건넸다. "윤 동지, 훗날 지하에서 만납시다!" 윤봉길이 차 안에서 나를 향해 머리를 숙였다. 무심한 자동차는 경적을 울리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이 천하 영웅을 싣고 홍구공원으로 질주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30년 가까이 났지만 김구 선생은 윤봉길 의사에게 결코 말을 놓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를 두고 '천하영웅'이라고 표현했지요. 김구 선생은 그 이후에도 윤봉길 의사의 시계를 쭉 차고 있었습니다."

김형오 회장은 이외에도 당대 최고의 거부로서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했던 최재형(최 뻬치카) 열사의 이야기도 잊지 않았다. 러시아에서 사업에 성공, 거부가 된 뒤에 의병을 지원하고 한인학교를 설립했으며 임시정부 재무총장을 지냈던 그.

안중근 의사의 거사 이후 러시아 변호사를 준비하고 러시아 법정에 세우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무위에 그쳤지만 무장투쟁 끝에 순국한 그의 이야기에 청중이 뜨거운 박수를 보낸 것은 물론이다.

동학, 유학, 불교를 거쳐 기독교에 입문했던 백범 김구 선생의 정신, 교육과 애국계몽 운동에 헌신했던 김구 선생의 청년 시절 역시 많은 청중의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김형오 회장은 마지막으로 『백범일지』는 김구 선생이 아들에게 주는 유언서이자 피로 쓴 독립혈서임을 밝히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서적임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모여 지키고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애국열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나라와 사회, 가정에 충실합시다. 이곳까지 찾아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함께 행복합시다."

큰 박수로 마무리된 백범 특강. 250명이 예정된 자리에 300명이 넘는 청중이 몰려든 이번 강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다잡는 계기가 되기에 더없이 충분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다시 생각해 보는 백범 김구 선생

김형오 전 국회의장·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

지난 2월 27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는 김형오 회장의 두 번째 특강이 열렸다.
첫 번째 특강에 이어 수많은 청중이 모여든 이번 강의 '우리가 몰랐던 백범 김구,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눈앞으로 다가온 3·1절과 임정 수립 100주년을 맞아 더욱 큰 의미를 갖는 강의였다.

글_ 이경희 기자 · 사진_ 장병국

백범의 애국정신을 기억하는 시간



지난 1차 특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을 감안해 이번 2차 특강에는 좀 더 넉넉하게 의자가 준비되었다. 봄방학 중이라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온 초등학생들이 눈에 많이 띈 것도 지난 강의들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국민의례를 마치고 단상에 오른 김형오 회장은 바쁜 와중에도 강연에 참석해준 내외빈들을 소개하고 감사인사를 전한 뒤 바로 강의를 시작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베트남에서 열리는 북미회담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길 바랍니다. 어제는 또한 우리 협회로서도 매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부청사나 청와대 밖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건 처음이었는데 모두가 알다시피 바로 이곳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역사적인 장소에서 백범 선생과 독립운동 2부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김형오 회장은 먼저 "지난 강의에서 김구 선생은 어떤 분인가. 그 집안은 어떤가.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등 주변의 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강의를 했다"고 밝히며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 한번 물어볼까요?"라는 질문을 던져 청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김 회장은 "백범 특강은 우리 모두가 독립운동의 뜨거웠던 열정, 목숨을 걸고 나라를 찾기 위해 애를 썼던 그 정신을 가슴으로 기억하면 된다"고 다시 한 번 차분히 청중에게 당부를 했다.

오늘 김형오 회장이 준비한 주제는 치하포 의거 이후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었던 독립운동가 백범의 이야기이다. 처음에는 김구의 가족사와 연애사를 준비했다가 3·1절을 이틀 앞두고 있어 '백범의 감옥 이야기'로 주


1


2


3


4


5


6

1. **인천감리서 입구** 김구 선생은 혹독한 수감생활로 유명한 이곳에서 두 번에 걸쳐 복역했다.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렸고 스스로 새로운 인물로 거듭나는 전환의 계기로 삼았다.
2. **홍릉을 참배한 김구** 김구 선생은 고종의 명령에 의해 사형 직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를 잊지 못한 선생은 1946년 7월, 광무황제 고종의 능을 참배했다. 함께 간 일행은 물론, 묘지를 지키는 일꾼까지 불러 사진을 찍은 김구 선생의 모습에서 인간은 평등하다는 평소 지론이 느껴진다.
3. **옛 정인 안신호와의 만남** 김구 선생 28세 때 혼인을 약속했으나 결국 함께 하지 못한 도산 안창호의 동생 안신호 여사를 45년 만에 다시 만난 김구 선생. 왼쪽부터 안신호, 김신, 안성결, 김구, 안치호의 모습이다. 평양의 송태산장에서 찍은 사진.
4. **재판정으로 끌려가는 애국지사들** 애국지사들이 머리에 용수를 쓴 채 줄줄이 재판정으로 끌려가고 있다. 1911년 '105인 사건'으로 체포된 애국지사들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백범 김구 선생이 속해 있던 신민회는 사실상 해체된다.
5. **다시 찾은 서대문형무소** 김구 선생이 '안악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복역했던 서대문형무소를 당시 함께 고생했던 동지들과 다시 찾았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감익룡, 최익형, 이승길, 우덕순, 도인권, 김구, 김홍량. 김구 선생은 김홍량을 언급할 때 "거북이는 진흙 밭에 들어갈 테니까 기러기는 멀리 날아가라"고 말했는데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앞세웠던 그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6. **삼일절 경축사를 하고 있는 김구** 광복 이후 처음 맞는 독립선언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는 김구(1946년 3월 1일, 서울 보신각). 이날 김구는 "3.1 운동의 위대한 의의는 그 통일성에 있다."고 역설했다.

제를 변경했다는 김형오 회장의 말에 모두의 기대가 더욱 부풀어 오른다.

치하포 의거로 다시 태어난 백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치하포 의거에 관련된 것이다. 1896년 3월 9일 백범의 나이 21세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다. 영화 〈대장 김창수(2017년)〉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이 일은 청년 김구가 아직 '김창수'였던 시절, 일생일대 가장 극적인, 오늘의 김구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던 큰 의미를 가진 의거였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는 이 날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명성황후의 시해였다. 1895년 명성황후가 일제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지자 조선인들은 이에 분개, 을미의병을 일으켰는데 청년 김구는 이 같은 사태를 지켜보며 이듬해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저 놈 하나를 죽여서라도 국가의 치욕을 씻어보리라!" 결심을 한 것.

스치다 조스케는 당시 변장을 하고 단발을 한 채 품에 칼을 숨기고 있었다. 김구는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그를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가담했던 자로 확신했다. 백범은 스치다를 처단하고 그가 갖고 있던 거금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뒤 "국모보수를 위해 이 왜놈을 죽였노라. -해주 백운방 텃골 김창수-"라는 벽보를 남긴 채 집에 돌아가 연락을 기다렸다.

"김구 선생은 칼까지 갖고 있고 덩치도 컸던 스치다를 처단하기 전에 끝없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늘 가슴에 새기고 있던 '벼랑에 매달려 나뭇가지를 잡은 손까지 놓는 자라야 장부라 하지 않았더냐. 得樹攀枝無足奇(득수반지무족기) 懸崖撒手丈夫兒(현애살수장부아)'란 시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가담했던 일본인들은 후에 히로시마 재판정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한제국은 명성왕후가 죽임을 당함으로써 크나큰 수치를 당했고 결국 그것이 청년 김구의 결단력을 일으킨 것이었지요."

21살 청년이었던 김창수는 피신하라는 주변의 권유를 마다하고 있다가 결국은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그러나 투옥된 이후에도 김구의 기백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일인 경관 와타나베 앞에서 "내가 죽는다면 죽어 원혼이 되어 일본의 왕과 침략한 자들의 씨를 말리겠다"고 외쳤고 감리사 이재정 앞에서는 "국모를 잃었음에도 몽백을 한 채 부귀영화만을 탐하는 마음"을 나무랐다. 결국 이재정은 김구의 충의와 용기에 놀라 "당혹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소"라는 말로 김구선생에게 머리를 숙였다. 와타나베 역시 자리를 피해 달아나버렸다.

감옥을 학교로 만들다

감옥에 들어간 뒤에도 김구는 여전히 특별한 인물이었다. 감옥을 학교로 만들어버리는 힘을 발휘했고 두 번의 자살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뒤에는 죽음을 초월해서 살았다. 1898년 6월 15일자 《독립신문》은 김구 덕분에 죄수는 학생이 되었고 인천감옥은 학교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김구 선생은 수감 생활 중 동료 수인들을 교화시키면서 사색과 독서, 신학문을 통해 의식의 개항을 맞이한 것이다.

그렇게 인천감리서에서 복역하던 김구는 마침내 자신의 사형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산[生] 조문행렬이 이어지고 동료 수인들은 애통해했으나 김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이 지나도 집행 소식이 없는 겁니다. 같이 있던 동료들이 김창수는 특수범이라 야간 집행을 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감옥이 왁자지껄해집니다. 대군주폐하께서 김창수를 살리라는 전화가 왔소! 하는 소리가 들렸죠.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뒤늦게 고종이 김창수 사건이 항일항쟁임을 알고 급하게 사형을 중지시켰던 거였죠."

김형오 회장은 당시 전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논란의 이야기를 꺼내며 전기전화 분야의 권위자인 진용옥 교수의 말을 빌려 "구명전화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이야기

를 전하기도 했다.

이후 김구는 감옥에 무기한으로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탈옥을 결심한다. 1898년 3월(23세) 마침내 인천감옥을 탈출한 김구는 삼남지방을 방랑하며 뜻이 맞는 우국지사들과 교류했다.

김구 선생의 결혼은 31살에야 성사되었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모두 13, 15살에 결혼한 것만 봐도 얼마나 늦어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요즘으로 치면 50세에 결혼한 거나 다름없을 정도였다.

김형오 회장은 백범이 안창호의 여동생 안신호와 혼약을 했으나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45년 뒤 백발이 희끗해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사진과 비서 선우진의 회고를 덧붙였다.

안악 사건으로 한국 현대사의 중심인물이 되다

안악 사건, 신민회 사건은 일제가 조선의 독립운동을 뿌리 뽑기 위해 혹독하게 자행한 사건이었다. 당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 지배하에 두기 위해 '교육·헌병경찰·토지조사'라는 세 가지 전략을 썼다. 식민지 교육을 철저히 하고, 공포의 헌병 통치를 했으며 토지조사라는 미명으로 경제수탈을 한 것. 한마디로 정치·경제·문화·심리적으로 압제를 한 것이었다.

"무단통치는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사람이 앞장섰습니다. 이 사람은 세 번째 통감을 하고 초대 총독을 지냈으며 총독을 마치고 나서는 일본으로 돌아가 수상까지 한 인물이었어요. 안악 사건, 신민회 사건 등을 통해 160여 명이 체포·투옥·고문당했으며 1911년 9월에는 총독 암살미수 사건으로 600여 명을 체포·구금했습니다. 105명이 징역형을 살았고 신민회 회원이었던 김구 선생은 안악 사건에 휘말리면서 안명근에 이어 두 번째로 중형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구 이름을 27번이나 언급하며 '황해도에 큰 세력을 갖고 있으면서 항상 제국(일본)의 세력을 배척해야 한다는 사상 보급을 고취하는 자'라고 했고, 이 사건은 백범이 한국 현대사의 중심부로 진입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김구는 그렇게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아찔한 순간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 곳에서 와타나베(이제는 총감부 기밀과장이 된)를 다시 만난 것이었다. 와타나베는 김구 선생 앞에서 "내 가슴엔 엑스레이가 있어 네 행적과 비밀을 훤히 알고 있다"고 협박했지만 김구 선생은 "숨은 적도 숨긴 적도 없다. 비밀 따위는 없다"고 응수했다.

와타나베는 김구선생이 인천에서 탈옥한 김창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김구 선생은 이를 두고 "엑스레이가 고장 났구나. 태산처럼 커 보이던 일제가 겨자씨만큼 작아 보이던 순간"이라고 회고했다.

와타나베가 끝까지 이 사실을 몰랐던 이유가 있었다. 조선인이지만 일본 편에 붙어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밀정들이 김창수=김구라는 사실만큼은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었던 것이다. 김구 선생이 평생에 걸쳐 증오했던 밀정들의 암묵적 애국심이었다.

서대문형무소에 있던 김구 선생은 죄수들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가장 형살이가 고된 인천으로 다시 보내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었다. 이름 구(九), 호 백범(白凡)으로. 九는 왜의 민적에서 벗어나고자, 白凡은 백정이나 범부 같은 특별할 것 없는 사람들이 애국심을 가져야 진정한 독립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개명을 한 것이었다.

석방된 이후 3·1운동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백범은 용단을 내린다. 백일 갓 넘긴 장남을 두고 기약 없는 상해 망명길에 오른 것이다.

김형오 회장은 김구 선생의 상해 임시정부 활약을 목전에 두고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했다.

"지난 강의에 이어 오늘도, 위대한 애국자의 작은 한 단면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출발선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특강을 마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다시금 찬찬히 되짚어본 백범 김구의 삶 그리고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 세 가지가 한데 어우러진 오늘의 강의는 청중의 벅찬 표정에서 각각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되살렸음이 확실해 보였다.

MINI INTERVIEW

〈1, 2차 특강을 마치고〉

"새로운 희망의 시작,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김형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

먼저 두 번에 걸쳐 대회의실을 가득 메워주신 청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에 백범 김구 선생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조금 진부한 느낌, 옛이야기 느낌을 갖지 않으실까 우려를 했는데 강의 내내 시종일관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시고 낭독에도 서로 참여하겠다고 손을 드셔서 정말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이는 지난 100년과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한해로서 우리가 각오도 새롭게 해야 하고 희망도 가져야 하고 다가올 세계에 대한 꿈도 펼쳐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우고 되찾기 위해 피·땀·눈물을 흘렸는지 그걸 아는 토대 위에서 우리 꿈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백범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김구 선생의 인간적인 면, 정의와 진리를 향한 열정, 사심 없는 마음 등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김구 선생의 '옥중 일화'를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일관하신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백범의 정신을 기리고 행동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이지요.

3·1운동과 임정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저는 몇 가지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국내는 물론 나라 밖으로 힘을 키워야 합니다. 애국심을 갖춘 노련한 외교안보 전문가를 길러내고 국방력, 경제력, 정신력을 키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두가 하나로 단합해야 합니다. 두 번 다시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김구 선생의 임시정부 시절과 광복군 창설까지 두 차례의 강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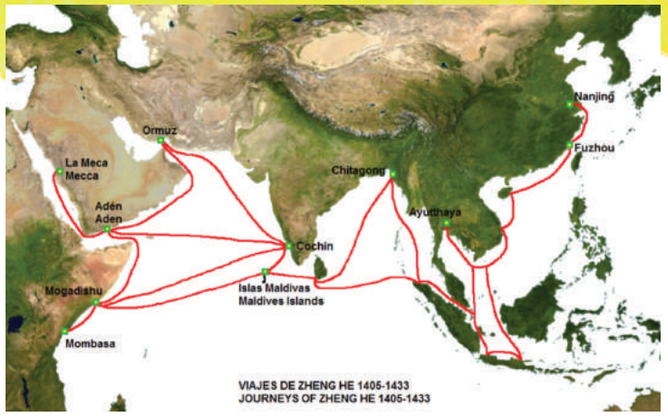
제11회 백범문화강좌 '근대초 해양 패권의 변화'

바다를 다스리는 자가 세계를 다스린다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주경철 교수

지난 3월 21일 열린 제11회 백범문화강좌의 주인공은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주경철 교수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인 그는 현재의 뿌리인 근대 역사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주었다. 알찬 역사 강좌로 세계를 보는 시야를 넓혀준 주경철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자.

글_ 유현경 · **사진_** 장병국



명나라 시절 정화는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남해 원정에 나서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다다랐다.





일찍이 바다를 지배했던 자들

열 번을 꽉 채운 후의 첫 번째 강의.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다는 설렘이 있는 오늘 강연의 주인공은 주경철 교수다. 주 교수는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이자 대한민국의 역사학자이다.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그의 저서 다수가 스테디셀러가 되었으며, 특히 저서 『대항해시대』는 2009년 대한민국학술원의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본격적인 학술서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서 못지않은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대중에게 역사를 통해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주는 주 교수는 오늘 '근대 초의 해양패권'을 주제로 청중을 만났다.

"역사를 '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안목을, 시야를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라고 운을 뗀 주경철 교수는 말을 이었다.

"역사인데 무슨 바다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고를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근대 현대 요즘으로 올수록 바다가 역사를 진행시키는 모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한 그는 바다가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죠.



16세기 영국의 월터 롤리, 20세기 미국의 앨프리드 머핸이 한 말인데요. 16~18세기를 지나면서는 영국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고, 20세기에는 미국이 전 세계의 바다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두 나라가 바다의 패권을 주도했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주 교수는 의외의 역사적 사실을 귀띔해 주었다. 근대 역사가 막 변화하기 시작했을 때 해양 패권의 주인공은 중국이었다는 것이다.

"15~16세기의 바다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중국하면 떠오르는 게 대륙인데, 이 시기 최강의 해군력을 가진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대 초, 중국이 그걸 버리면서 대륙 내부에 갇히는 세력으로 바뀝니다. 중국이 세계사의 패권을 잡고 있다가 우승 직전에 놓아버린 셈이었습니다."

중국이 패권에서 뒤처진 이유

주 교수는 명나라 시절 정화의 남해 원정이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대략 7차례. 대규모 선단을 꾸려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의 30여 나라를 원정한 정화의 배는 지금의 규모로 보아도 어마어마했다. 지금까지의 정설은 배 한척의 길이가 130~150미터다. 효창운동장만한 배라는 것. 게다가 한번 떠나면 선단이 150척 규모였다. 콜럼버스의 배가 테니스장만 했던 것에 비해 규모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 그랬던 중국이 해양패권을 버린 시점과 이유가 주목할 만하다.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해상력을 버린다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국가라기보다는 하나의 대륙이고 제국이었던 중국은 제국 질서를 잘 운용하기 위해 물길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물자가 서로 흐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러한 운영 시스템은 명나라 초에 완전히 정착이 되어 비약적으로 발달했는데, 사실 이것은 송나라 때부터 수 백년 동안 발전해 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버렸다는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주 교수는 송나라뿐 아니라 개방적이고 활달했던 당나라 시대도 짚어주었다.

"당나라 문화가 멋있죠. 외국과의 문화 교류도 활발하고, 여자가 말을 타고 폴로를 하는 조각상이 있을 정도였던 것을 보면 굉장히 활달한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나라 때는 중국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외국 배가 들어오는 방식이었죠. 송나라 때부터 선원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화교촌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나라가 지배를 하면서 송나라 때의 선박 운영체계를 받아들입니다."



당나라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유물. 여성이 말을 타고 폴로 경기를 즐기는 모습이다.

"나폴레옹이 진 것도 결국 넬슨 때문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해군이 막히지 않아야 보급이 원활한데, 결국 나폴레옹은 거기서 진거죠."

빈 조약 당시 영국의 요구는 유럽 내 영토 대신 세계 각지 요충지를 요구한 것이었다니 이후 영국이 세계 패권을 갖게 된 것에 청중은 고개가 끄덕여졌다.

20~21세기 바다의 변화에 주목하라

주경철 교수는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바다가 현재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갔다.

"20세기 후반 이후는 우리 시대죠. 이때에 바다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흥미로운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무역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흐름을 잘 탔기 때문에 세계 최빈국에 가까운 나라에서 10위권 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사례입니다."

주 교수는 세계무역이 발달하는 데에는 작지만 큰 발명이 있어 가능했다고 전한다. 바로 박스혁명이라 일컬어지는 컨테이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하역 비용은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었다.

"유럽 항구에 하역하는 데 5천 톤 적재에 6일, 10일 항해 후 하역에 4일이 걸렸습니다. 전체 비용 중 항해 비용은 12%, 하역 비용이 50%나 되었습니다. 1956년 이후 매클레인이 박스, 일명 컨테이너 개념을 내놓으며 무역 발전이 앞당겨집니다. 톤당 적재 비용 5.83달러를 16센트로 내리고 시간도 엄청나게 절약되는 혁명이었죠. 이렇게 단순한 게 세상을 바꿉니다."

현재 세계교역량은 2017년 현재 110억 톤이고, 2025년 150억 톤을 예상한다니 박스혁명이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해외 교역의 95%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진다니 바다가 중요하다는 것이 체감이 된다. 해양패권으로부터 멀어졌던 중국의 최근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이어졌다. 바로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이다.

"중국의 계획대로라면 68개국, 44억 인구, 세계 총생산 44%와 연관된 프로젝트이고 육로와 해로를 통해 인도양 방면 패권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불투명한 요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시해보아야 합니다."



1



2



3

1 컨테이너가 고안되기 이전, 항구의 하역 작업은 비용과 시간 면에서 비효율적이었다.
2 이제 아시아의 바다가 가장 뜨거운 패권의 무대이다.
3 현대의 획기적인 정보 혁명에서 해저케이블의 역할은 독보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1443년을 마지막으로 해양에 대한 관심을 버리게 되고, 이후 해상력이 쇠퇴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유는 북방민족의 위협을 물리치기 위해 북쪽으로 천도하고, 집중했기 때문이었다. 아예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하기까지 했다.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었지만, 결국 이것은 아편전쟁에서 지고 중국이 세계사의 큰 흐름에서 뒤처지게 되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세기는 유럽이 패권을 가져가게 되었다. 왜 유럽이, 서구가 패권을 차지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바다라는 요소를 고려하면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 교수는 강조했다.

주 교수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지만 2040년쯤 북극항로가 열리면 세계무역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되고, 우리 부산항이 뜻밖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도 덧붙여주었다.

16세기에 시작해 20~21세기의 역사를 되짚다보니 청중에게는 딱딱한 역사 강의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듯했다. 현재의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게 된다. 모두에게 의외였던 정보는 해저케이블에 대한 것이었다.

"물자 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해저케이블입니다. 무역보다 더 큰 혁신 가능성이 있지요. 정보 전송량이 2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1인당 연 5200 기가바이트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때 기여를 하는 것이 해저케이블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정보가 인공위성을 통해 전달된다고 오해를 하곤 하는데요. 사실은 98~99%가 해저케이블을 통해서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바다를 통해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근대 역사에 집중하는 이유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주경철 교수는 현대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정보까지 전달해주었다. 점차 어업자원이 고갈되어 십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생선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며. 컨테이너 박스혁명으로 항구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져 마도로스의 낭만은 사라진 지 오래라는 이야기, 향후 3D 프린터가 일반화 되면 현지 공장이 필요 없이 데이터를 전송해 제품을 생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들이 청중에게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깊게 다가왔다. 주경철 교수의 강의가 남달랐던 이유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고민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한때 최강의 해군력을 갖고 있다가, 바다를 버리고 세계 패권에서 멀어졌던 중국이 다시 해양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주 교수는 "아시아의 바다가 가장 뜨거운 패권의 무대"이며 "우리가 큰 시각으로 바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며 강의를 마무리 지었다.

1시간의 알차고 뜨거운 강의에 대해 청중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재작년 처음으로 강의를 접하고 너무 좋은 내용에 매번 오게 된다는 황민재 씨는 "오늘도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임홍채 씨는 "동남아시아 등 전세계 역사와 철학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대충 이해하던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이야기했다. 매번 부부동반으로 강의에 온다는 이일형 씨는 "역사적으로 쭉 현재까지 연결해서 설명해주시니까 참 좋았다"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부분이 많은 강의였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지는 제12회 백범문화강좌는 오는 4월 18일(목) '3·1운동 기미혁명과 한국 근대사'라는 주제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정치학과 정윤재 교수가 진행한다.

MINI INTERVIEW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을 이해하기 위해

주경철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해주시니 우리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동적이기까지 하네요. 오늘 저의 강의는 근대 초 해양패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근대 역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근대 중에서도 '바다'인 이유는 요즘 제 관심사이기도하고, 역사의 무대를 확장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보자는 이유에서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바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 바다를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다가 아닌 육지를 중심으로 생각했었기에 미래를 바라보는 시야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세계 최강 해양력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버렸었고, 한참을 지나 지금 다시 해양패권에 관심을 갖는 현상들. 역사를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긴 연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이해하면 세계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짧은 강의를 통해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세계의 큰 구조에 대한 눈을 뜨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2019년 『백범일지』 독서감상문쓰기대회

전국 중·고등학교 및 경찰·군부대 22개 단체 11,000여 명 참가, 도서 5,000여 권 증정 예정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와 백범김구기념관은 지난 2005년 11월 육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군부대 및 전국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를 실시, 많은 젊은이와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겨레 사랑 정신을 고취해 오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지난 2018년까지 373개 중·고등학교와 111개 군부대가 참여했습니다. 합산하면 484회, 총 585,666명을 헤아립니다.

2019년에도 전국의 중·고등학교와 경찰·군부대를 대상으로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는 초대 경무국장을 지낸 백범 김구 선생을 추념하는 뜻에서 경찰청·경찰대학·중앙경찰학교 등 총 22개 단체, 1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 2019년 백범일지 독서감상문쓰기대회 시상 계획

일정	단체명	참가인원	소재지
4월	휘문고등학교	408명	서울 강남구
	이화여자고등학교	390명	서울 중구
	천상중학교	300명	울산 울주군
5월	단양고등학교	150명	충북 단양군
	충주대원고등학교	454명	충북 충주시
	충원고등학교	300명	충북 충주시
7월	상계제일중학교	220명	서울 노원구
	덕정고등학교	500명	경기 양주시
	호원고등학교	280명	경기 의정부시
	음성고등학교	400명	충북 음성군
	남대전고등학교	400명	대전 중구
9월	가산중학교	400명	서울 금천구
	목상고등학교	178명	전남 목포시
10월	전주신흥고등학교	300명	전북 전주시
	숭의여자고등학교	305명	서울 동작구
11월	호평고등학교	273명	경기 남양주시
계	16개 학교	5,258명	

※ 시상식 일정이 확정된 단체만 표기했습니다.

2018 청소년 백범문화캠프 시행 완료

백범김구기념관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27일과 28일 '2018 청소년 백범문화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지난해 『백범일지』 독서감상문쓰기대회를 실시했던 전국 25개 고등학교 수상자 중 8개 교 총 28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기념관을 둘러보며 『백범일지』 속에 기록된 김구 선생의 일생을 상기한 다음 선생의 서거 장소인 경교장으로 이동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김구 선생의 마지막 숨결을 느껴보았다. 이후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을 통해 김구 선생과 독립운동가들의 독립 의지를 살펴보았다. 참가자들은 답사지에서 보고 들은 정보를 조별 역사 게임을 통해 되살렸으며 독립운동가를 홍보하는 포스터도 제작했다. 둘째 날은 안중근의사기념관 관람 후 효창원 애국선열묘역 참배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캠프를 통해 『백범일지』 독서감상문쓰기대회 수상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면서 백범 정신 함양을 통한 수상자들 간의 연대감을 조성했다. 다양한 기관 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독립운동가와 우리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앞으로도 우리 기념관은 『백범일지』 행사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김구 선생과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심을 알리고 기려나갈 것이다.

제8기 백범김구기념관 도슨트 양성 과정

3월 6일(수)부터 3월 28일(목)까지 4주간 '제8기 백범김구기념관 도슨트(전시해설가) 양성 과정'을 시행했다. 참가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김구 선생의 생애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수료 후 선발된 인원은 3주간의 심화 과정을 거쳐 기념관 '8기 도슨트'로 활동할 예정이다.

백범김구기념관은 많은 관람객에게 김구 선생과 우리나라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슨트 전시 해설은 매주 토·일요일 14시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6기 백범김구기념관 청소년 도슨트 활동



백범김구기념관은 지역 사회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경험과 진로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 청소년 도슨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제6기 백범김구기념관 청소년 도슨트는 3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기념관 인근 고등학교(신광여자고등학교, 배문고등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제6기 청소년 도슨트는 6개월간 김구 선생의 생애와 우리나라 근현대사, 전시 해설 방법 습득과 실습 과정을 거쳐 선발되었다. 청소년 도슨트는 매주 토·일요일 11시 초등학생 동반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재미있는 전시 해설을 진행한다.

특별교육 '찾아라! 우리 역사'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리고 김구 선생 서거 70주기를 맞이하여 기념관에서 시행하는 특별교육 '찾아라! 우리 역사'가 3월 16일(토) 시작됐다.

1회 교육의 주제는 '백범 김구의 소원'으로, 독립과 통일을 위해 노력하신 김구 선생에 대해 알아보았다. 초등 3~4학년 25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총 3차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2회 교육은 4월 6일(토)부터 시작된다.

1. 주　제 : 백범 김구의 소원 /
백범 김구와 대한민국임시정부
2. 일　시 : 1~8회(3주 과정) 선택 / 10:00~12:00(2시간)
3. 대　상 : 초등 3~4학년 / 회당 25명
* '찾아라! 우리 역사' 수료생 대상 가족 답사 시행
* 자세한 교육 일정 및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확대 개편된 백범 문화 강좌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는 격월로 실시해온 '백범 문화 강좌'를 확대 개편한다. 올해는 지난 2월과 3월 각각 진행된 '백범 특강'과 '제11회 백범 문화 강좌'에 이어,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강사와 주제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회 차	일 시	강사명	강연주제
백범 특강	2/27(수)	김형오 회장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우리가 몰랐던 백범 김구, 그 두 번째 이야기
제11회	3/21(목)	주경철 교수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근대 초 해양 패권의 변화
제12회	4/18(목)	정윤재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기미혁명(3·1운동)과 한국 근대사
제13회	5/16(목)	최재천 석좌교수(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과학부)	미정
백범 특강	6/20(목)	김형오 회장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우리가 몰랐던 백범 김구, 그 세 번째 이야기
제14회	7/18(목)	미정	미정
제15회	8/22(목)	이태진 석좌교수(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미정
제16회	9/19(목)	미정	미정
제17회	10/17(목)	미정	미정
제18회	11/21(목)	미정	미정
제19회	12/19(목)	미정	미정

현장체험교육 강사 연수

지난 3월 18일(월), '2019년 1차 현장체험학습기관 교육 강사 연수'를 시행했다.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진행되는 교육 강사 연수는 백범김구기념관 설립 목적을 소개하고 김구 선생의 생애와 근현대사를 이해하며 올바른 역사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운영되고 있다. 연수 프로그램은 기념관 소개 및 관람시 유의 사항 전달, 전시관 관람 및 묘소 참배로 진행되었다.



2019년 어린이날 문화 행사

어린이날 하루 전인 5월 4일(토),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문화 행사를 연다. 특별 공연과 페이스 페인팅, 태극기 풍선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 및 도슨트가 안내하는 전시 해설이 준비되어 있다. 홈페이지 예약으로 진행되며, 당일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선물할 예정이다.







백범김구기념관-대련한국국제학교 업무협약(MOU) 체결식

지난 2월 8일(금) 백범김구기념관은 중국 대련한국국제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기념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백범김구기념관 정양모 관장과 대련한국국제학교 임승호 교장이 참석했으며, 협약서 서명 후 기념으로 김구 선생의 친필 휘호인 '충효전가(忠孝傳家)'를 증정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학생들의 역사 교육 제고와 역사의식 신장, 그리고 공동 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백범김구기념관 주말가족나들이 안내



1. 일 시 : 매주 토/일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
2. 대 상 : 초등생 동반 가족 단위
3. 정 원 : 20~35명
4. 예 약 :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전 9시,
홈페이지 선착순 예약

• 전시 해설
- **청소년 도슨트 :** 매주 토/일 오전 11시(약 1시간)
- **도슨트 :** 매주 토/일 오후 2시(약 1시간)

• 가족 교육

월	날짜
4월	20일(토), 21일(일), 27일(토), 28일(일)
5월	12일(일), 18일(토), 25일(토), 26일(일)
6월	8일(토), 15일(토), 23일(일), 30일(일)
7월	7일(일), 13일(토), 21일(일), 28일(일)
8월	11일(일), 17일(토), 24일(토), 25일(일)

- **시 간 :** 오후 2시(약 2시간)
- **교육명 :** 경성역으로 가는 기차, 독립운동가의 옷을 입다, 백범신문 만들기, 김구 선생님 화폐 만들기
- 교육 내용 및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교육 일정은 기념관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약시 유의 사항
- 참가자가 20명 이하일 경우 주말 교육은 폐강됩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약 취소를 원할 경우 최소 이틀 전 전화 연락바랍니다. 02-799-3431

애국지사 김우전 선생 별세



광복군 출신으로 김구 선생의 비서와 광복회장을 지낸 김우전 선생(98세)이 2월 20일 별세,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됐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고문으로 활동한 그는『김구 통일론』,『김구 선생의 삶을 따라서』 등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을 남겼다. 김형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은 지난해 9월 10일 자택으로 김우전 애국지사를 방문(사진)한 바 있다.

백범김구기념관 방문 소식



• **국방정신전력원**

2월 19일(화), 662포병대대에서 국군 장병 80여 명이 기념관을 찾았다. 이들은 전시관을 관람하며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나라와 현재 우리 앞에 놓인 평화·통일의 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 효창원 애국선열묘역을 참배하고 돌아갔다. 한국 근현대사와 독립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당면 과제인 평화·통일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

• **세종시교육청**

2월 14일(목), 세종시교육청에서 현직 초등 교사 30여 명이 교육 담당자의 설명과 함께 전시관을 둘러보며 백범 김구 선생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 효창원 애국선열묘역을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원했던 김구 선생의 소원을 되새기며, 교육으로서 문화 강국을 이룩할 수 있도록 어린이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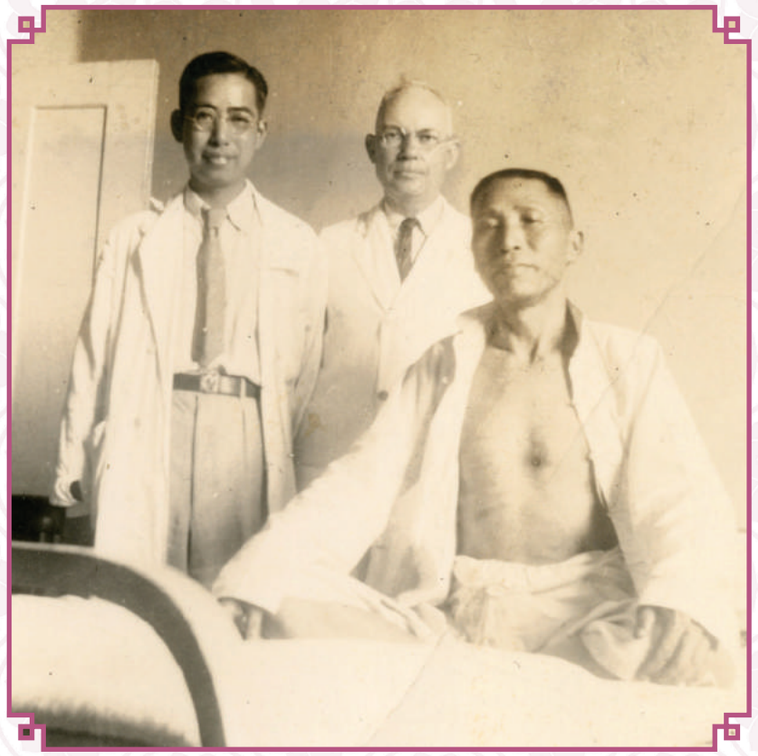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전시 해설) 및 교육 참여



고양 흥도초, 대곡초, 부천 수주초, 서정초, 선행초, 성남 상대원초, 옥길 산들초, 의왕 덕성초, 이대부속초, 일신초, 중대부속초, 행신초, 강현중, 관악중, 대명중, 덕산중, 서초중, 신광여중, 신현중, 아현중, 오산중, 용강중, 용산중, 장원중, 환일중, 가재울고, 보성여고, 세종과학고, 신광여고, 예일디자인고, 장충고 등 초·중·고등학교와 공군 항공안전단, 광명시 햇님청소년활동센터, 국방정신전력원, 노무현재단 경남지역, 대전점자도서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팀, 세종시교육청, 양구경찰서, 진해 사랑의교회, 제1방공 507대대, 662포병대대 등의 군·경찰과 기관에서 백범김구기념관을 방문했다.

이들은 교육 담당자, 도슨트와 함께 전시 관람 및 효창원 애국선열묘역 참배로 진행되는 '전시 해설'과 '역사의 현장 속으로! 백범신문 만들기', '뿌리 깊은 대한민국' 등의 교육에 참가했다.

일제의 흉탄에도 의연했던 겨레의 큰 스승 백범



사진출처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 백범 김구는 남목청에서 총상을 입었다. 그로부터 수시간 뒤 촬영된 이 사진을 통해 당시 백범의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938년 백범 김구는 3당 통일을 논하는 자리에서 조선혁명당원 이운환의 피격으로 가슴에 총탄을 맞았다. 중상을 입은 백범은 중태 상태로 상아병원에 이송됐다. 상태는 매우 나빠 보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백범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소생할 가망이 없어 보이자 의사들은 응급처치도 하지 않은 채 문간방에 놓아두고 장남 인과 안공근에게 사망소식을 알리는 전보를 쳤다. 그러나 4시간이 지나도 백범이 살아 있자 의사들이 백범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백범은 심각한 총상을 입었음에도 기적처럼 살아났다. 총알은 심장 바로 앞에서 멈춰 있었다. 사진에서 김구의 가슴에 총탄 자국이 선명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국민당 장개석은 친서와 치료비를 보냈다. 백범은 얼마 뒤 임정 국무회의에서 내무·국방·외교 등 전권을 쥐는 주석으로 선출됐다. 백범 뒤로 2명의 의료진은 수술에 참여했던 중국 창사 상아병원 의사들이다.

한편 이 사진은 지난 해 12월 13일 최초 공개된 사진으로, 부산시립박물관에 기증된 서영해 선생 자료에 포함돼 있어 뒤늦게 발견됐다. 서 선생은 1929년부터 프랑스에서 고려통신사를 운영하며 한국의 독립을 세계에 전한 인물이다.

빙그레 웃는
이 얼굴이 좋아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웃게 할 수 있을까?'
오직 이 생각 하나만으로
쉼 없이 달려온 빙그레–
단 한 명의 소외된 사람 없이
내일을 꿈꾸며 웃음 지을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짓는 일에
빙그레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빙그레는 전 임직원이 해비타트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m.bing.co.kr 빙그레
www.bing.co.kr

밝은 미소의 메신저
빙그레